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呂 珠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夢囈 南克寬의 文學意識 研究

2009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林 昇 炫

夢囈 南克寬의 文學意識 研究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林 昇 炫

認 准 書

林昇炫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夢巖 南克寬(1689~1714)은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살았던 문인이다. 당시 조선은 당쟁과 전쟁의 상처로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문학적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한 변모양상을 보인다. 16세기 후반에 유입된 중국의 문예사조는 17세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의 문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전후칠자를 대표자로 하는 의고파와 당송파, 공안파, 경릉파는 조선의 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조선후기 문학의 내외적 성숙을 가져왔다.

몽예는 급변하는 조선 문단의 현장에서 그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독창적인 문학적 견해를 정립시키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몽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詩나 文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몽예의 문학의식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성과는 부족한 형편이다. 아마도 김창협이라는 당대의 거목에 가려져 몽예가 지니는 학문적 성취의 진면목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는 몽예의 문학의식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몽예는 병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다양한 독서는 몽예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세상과의 소통이자 학자로서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몽예의 문학의식은 중국 문학의 수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문학은 활발한 중국 서적의 유입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몽예는 이러한 문단의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중국의 여러 문학 사조를 두루 섭렵한 몽예는 개방적인 시각과 유연한 사고로 나름의 비평관을 확립하게 된다. 특히 조선후기

문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의고주의 문학론과 공안파 문학론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어느 한쪽을 옹호하기 보다는 양쪽의 장단점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몽예의 문학적 특징을 역대 우리나라 작가에 대한 비평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몽예의 비평은 김창협이 비평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발언이 특히 많으므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창협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氣 중심의 비평관에서는 정두경과 이규보에 대한 비평으로 몽예의 氣格, 氣象을 중시한 문학적 특징을 추출해 보았다. 두 번째는 허목과 최립, 유몽인에 대한 발언을 통해 살펴본 부분으로, 몽예의 학문 저변에 尙古정신을 중시했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박세당에 대한 몽예의 긍정적 비평이 脫朱子學적 인식의 옹호라는 문학적 특징에서 도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몽예의 문학의식은 문학론의 이름 아래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학적 성취를 이루기 전에 요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문집에 담긴 견해와 이론은 17세기~18세기 조선 문단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집중 받지 못했던 몽예의 문학의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의 문학론의 다양한 노선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現況 및 研究 方法	2
II. 生涯 및 時代的 背景	6
1. 生涯	6
2. 時代的 背景	11
III. 文學意識 形成 背景	16
1. 意識世界 形成 背景	17
1) 讀書에의 深趣	18
2) 多樣한 學問的 觀心	26
2. 中國 文學의 受容 樣相	31
1) 開放的 視覺과 柔軟한 思考	33
2) 明代 文學思潮의 折衷的 受容	41
IV. 文學世界의 特徵	47
1. 氣 中心의 批評觀	49
2. 尙古精神의 重視	65
3. 脫朱子學的 認識의 擁護	71
V. 文學史的 意義	79
VI. 結論	82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 目的

이 논문은 夢巖 南克寬(1689~1714)의 문학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의 17~18세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한 직후였고 역사상 유례없는 당쟁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이 명에서 淸으로 교체되면서 당시 조선의 여러 방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민간교류의 확대는 중국서적의 유입을 확대시켰고 그에 따른 조선 문단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시기에 몽예는 조선 문단의 변화를 예리하게 인식하였고 그것을 기록한 문집을 남기고 있다. 몽예는 짧은 생을 살다갔지만 그가 남기고 있는 문집에는 역대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에 관한 비평은 물론, 중국 문학론과 언어문자론, 天象, 曆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존의 몽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몽예의 樂府詩에 주력하여 고찰하거나, 시세계의 특징을 규명하거나 몽예의 산문에 대해서 내용상의 분류를 통한 개괄적인 검토 및 의미 고찰한 연구서들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몽예 남극관의 산문에 드러난 문학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몽예는 같은 시기의 인물인 김창협이라는 巨木에 가려 그의 문학적 특징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몽예의 문집에 드러난 언급들은 당대의 문단의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김창협과는 대비되는 비평들이 있어 당대 조선 문단의 다른 노선을 살펴

볼 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詩와 文을 개별적인 문학의 행태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서술한 점, 중국 문학론에 대한 몽예의 견해 등은 당시의 조선 문단을 파악하는 데 보다 더 균형적인 시각을 통한 객관성 확보에 보탬이 되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문학관으로 조선 문단을 바라보았던 몽예의 삶을 그의 생애와 문학인식 속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문학비평이 시도되지 않았던 시기에 있어서 몽예의 문학의식을 탐토하려는 작업은 그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몽예 문학의 진면목이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研究 現況 및 研究 方法

몽예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아주 편린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몽예가 남긴 시와 산문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그의 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성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그가 남긴 잡록류 『謝施子』는 문학비평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몽예의 문학의식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몽예의 『續東都樂府』에 관한 정석용의 논문¹⁾은 악부시에 관한 자료의 발견 및 소개가 이루어진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일부 작품의 해석상의 오류를 남긴 점과 전체 작품의 논지를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안대회는 조선후기 시화의 史的 전개 양상을 살피는 그의 저서²⁾에서

1) 정석용, 「몽예 남극관의 속동도악부 연구」, 『한문학논집』, 단국한문학회, 1991.

2) 안대회, 『조선후기 시화사 연구』, 소명출판사, 2000.

몽예의 「謝施子」를 시화자료로 소개하였다. 그는 몽예가 주장하던 시론이 기본적으로 氣化·氣力을 숭상하는 전통적 의고·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있는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當代에 풍미하던 農巖 계열의 시인들이 주장한 시론의 혁신성과, 품격비평을 견지한 시론의 견고한 틀로서 「사시자」의 가치를 이해하였다. 이는 몽예가 내세웠던 문학적 인식에 대해 詩史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언급들은 앞서 지적된 바, 농암계열의 혁신적 성격을 부각하기 위한 방계자료로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몽예의 문학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후에도 앞선 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김영숙의 연구³⁾에서는 그의 악부시가 본격적인 영사악부의 자료로서 소개되었고, 박동주⁴⁾는 그의 학위논문에서 처음으로 몽예의 작품 세계를 다룬 연구를 통해 작품의 분류를 통한 시 의식을 규명하고자 하였지만 역시 악부를 중심으로 한 詩 작품의 연구에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주수의 소논문⁵⁾은 몽예의 시를 陰柔之美라는 미적 특질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특히 몽예의 아버지인 南鶴鳴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그의 문학관을 이해한 것은 참신한 시도이나 하나의 특징으로만 그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영미의 연구⁶⁾는 몽예의 문학 비평에 주목하여 고찰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연구보다 진척된 연구 성과를 남겼지만 몽예의 시각으로 김창협 의 문학론의 특성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몽예의 문학론에 관한 연구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3) 김영숙, 『한국영사악부 연구』, 경산대출판부, 1998.

4) 박동주, 「몽예 남극관의 시세계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 김주수, 「몽예 남극관의 시세계 연구 - 음유지미의 슬픈미감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0집, 보고사, 2006.

6) 진영미, 「몽예가 본 농암의 문학과 비평론」, 『민족문화』 24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謝施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창용의 연구⁷⁾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창용의 논문은 『謝施子』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류하고 비평사적 의의를 찾으려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謝施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학비평에 관한 분석이 구체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후 송혁기는 몽예의 학문과 산문비평에 대한 소논문⁸⁾을 발표하여 산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 비해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몽예의 문학사적 위치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현황들을 통해 살펴본 바 각 논문마다 몽예의 문학관을 평가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대희는 몽예를 농암계열의 반대편 입장인 보수주의적 문학관이라고 평가했지만 김주수는 천기의 발현을 통한 진솔한 표현을 추구한 진보주의 문학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몽예의 문학적 특징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평가로 나뉘는 몽예의 문학관을 그가 남긴 문집을 통해 문학적 특징을 찾아내고 재정리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몽예의 문학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II장에서는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문학의 흐름에서 몽예의 삶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몽예의 의식세계 형성 배경과 중국 문학에 대한 몽예의 수용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의식의 형성 배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작가의 비평을 통해서 몽예의 문학세계 특징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V

7) 이창용, 「南克寬의 『謝施子』연구-학문관과 문학론을 중심으로」,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8) 송혁기, 「몽예 남극관의 학문과 산문비평」, 『한문학보』 14집, 우리한문학회, 2006.

장에서는 문학사적 의의를 통해 몽예의 문학사적 위상과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가 남긴 견해와 주장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사실을 재평가함과 동시에 몽예의 문학론이 당대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행한 『한국문집총간』 제209집에 있는 『夢囈集』을 텍스트로 삼아 연구를 진행함을 밝혀둔다.

몽예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특히나 당대는 정치적·문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따라서 당시를 살았던 몽예의 문학은 그가 살았던 짧은 생 안에서도 다양한 면모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가 남긴 시편과 기록들은 작가 개인의 인식과 표현양상을 살필 수 있는 성과 이외에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문학의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후대로 이어지는 문단의 변모양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II. 生涯 및 時代的 背景

1. 生涯

몽예 남극관(1689~1714)은 조선 숙종 때 문인으로 자는 伯居, 호는 夢嚙, 謝施子, 幽憂子이다. 본관은 의령으로 소론의 영수였던 南九萬(1629~1711)의 손자이며, 南鶴鳴(1654~1722)의 아들이다. 그는 비록 26세에 요절하였으나 일찍부터 시문에 뛰어났고 幽憂疾患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이었다.

몽예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이미 13세인 1701년(숙종 27)에 「送春用唐人韻」이란 시를 지었고, 15세인 1703년(숙종 29)에 「續東都樂府」를 남겼다. 1708년(숙종 34)에 戊子式年司馬試에 생원 2등으로 합격하여 成均館에 들어갔다. 다음해 怪疾에 걸려 이후 6년 간 병고에 시달렸다.

몽예가 남긴 글로는 자신의 시와 문을 담아 스스로 편집한 『夢嚙集』이 유일하며 俛遜의 『近思齋逸藁』를 校讎하고, 조부 남구만의 『疏筍集』을 교정하기도 했다.

그의 문집 『夢嚙集』에는 乾卷에 詩 79수와 雜著 10편, 坤卷에 讀書餘錄과 詩文簡評·天象·曆法·書法·理聞故事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漫錄인 「謝施子」, 192則이 있다. 특히 잡저에 수록된 「金參判曆法辨辨」에서는 지구 천체관 등 천문학에 관한 그의 독특한 견해를 볼 수 있다. 이 글은 金公始의 「新曆不可用說」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마테오리치(Matteo Riccio, 湯若望)의 구형설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이 문집은 당시로는 진보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현재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몽예의 아버지 晦隱 南鶴鳴은 相臣家의 자제로서 종 6품의 벼슬인 主

簿에 천거되었지만 끝내 출사하지 않고 회은동에 은거, 독서와 작문으로 평생을 보냈다. 때때로 전국산천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처음 文簡公 이민서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나 6년 동안 후사가 없는 채 요절하게 되자 비로소 文忠公 이항복의 증손녀인 경주 李氏(1658~1740)를 맞아 서른여섯에야 맞아들 극관을 얻게 된다. 이후 處寬·五寬의 형제를 더 두었지만 맞아들 극관이 1714년(숙종 40) 26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게 됨에 여의치 않은 후사를 근근이 이어가게 된다.

몽예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보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개인 생애 이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부 남구만의 『藥泉集』, 아버지 남학명의 『晦隱集』 등에 보이는 편지 및 일화, 묘표, 기타 문인들이 저술한 제문 등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다. 『회은집』에 기록된 「亡兒墓表」의 전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생원 남극관의 묘이니 대구 서씨를 함장하였다. 자는 伯居, 영의 정으로 치사한 남구만의 冢孫이다. 아버지는 鶴鳴인데 문충공 이항복의 증손을 배필로 하여 서른여섯에 너를 낳았다. 약관에 진사가 되어 세상이 모두 문장으로 나라를 빛낼 것을 기대하였다. 불행히도 병이 깊어 6년 후 죽었으니, 나이가 스물여섯이다. 그가 태어난 해는 조부의 회갑년(1689)이었고, 그가 죽은 해는 또 그 아버지의 회갑년(1714)이었다. 사람됨이 뛰어난 밝고 곧고 강직하고 깨끗하여, 다른 욕심이 없었는데 오직 전적만은 탐하여 침식을 잊었다. 학문이 넓기가 지극하고 정미해서 시원히 자득함이 있었다. 생각건대 논찬은 일가의 말이 되어 뒷세상에 드리울만 하였는데 이루지 못하였다. 스스로 호를 ‘사시자’라 하고, 臨死에 스스로 그 유고 두 편을 묶어 제하여 말하기를 『몽예집』이라 하였다. 서씨의 생사(1690~1715)는 모두 너보다 1년 후였는데, 용인 태화산 서쪽 기슭 앞선 묘자리 뒤편 良

方의 언덕에 합장하였다. 이것이 조선의 두번째 을미년(1715, 숙종 41) 2월의 일이다. 성품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효도하는데 이르더니, 상을 당하여서는 황천으로 남편을 좇아 돌아가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자결하여 흉하게 되기를 꺼려하더니 끝내 毀疾을 이기지 못하였다. 스스로 죽은 뒤의 일을 적어 죽기 전에 그 형에게 보여주니 모두 조리가 있었다. 마을에서 절행으로 천거하니 조정에서 듣고 정문을 내렸다. 그 아버지는 판서 문유이다. 아비는 차남 처관이 아들을 낳았으니 너의 후사를 잇게 하고, 세 딸이 시집가고 나면 이어서 묘표의 원편에 새기려 한다. 우리 의령 남씨는 국초의 경렬공 을번 11세로부터 冠冕을 세습하여 대개 혈속에 전하였으나, 너의 몸이 이르러 요절함에 후사가 없게 되어 양자로 의탁하게 되니 아! 슬프구나.9)

가계의 내력과 생애 편력을 간략히 기술하고, 서른 여섯의 늦은 나이에야 얻은 말아들이 후사도 없이 병사하게 됨에 회갑의 노년을 맞이한 아버지 회은공이 느껴야 했을 기막힌 정회를 담담히 서술하고 있다. 짧은 생애였지만 몽예는 당시 이미成家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후에 보인 부인 서씨의 행적 묘사가 곡진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몽예의 생애 이력에 관한 여타 증빙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은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9) 南鶴鳴, 『晦隱集』 卷4, 「亡兒墓表」 “生員南克寬墓 大丘徐氏 附左 字佰居 領議政致仕 諱九萬家孫 父鶴鳴 娶李忠公 恒福曾孫 三十六生汝 弱冠登上庠 世皆期以華國 不幸沈疾 六年不起 年二十六 其生也 卽先府君 周甲之己巳歲 其死也 又其父周甲 爲人穎拔 明直介潔 無嗜欲 惟耽典籍 忘寢食 博極精微 沛然有自得 擬論撰爲一家言 以垂後 而未及 自號謝施子 臨死 自定其藁二編題曰 夢囈集 徐氏生死 皆後汝一年 附葬龍仁大華山西麓先兆負良之原 卽崇禎後 朝鮮再乙未二月也 有至性克孝舅姑 及喪定以歸從泉下 猶嫌自決爲凶 終毀而不勝 自草身後事 臨絕示其兄 皆有倫理 閭里舉節行 聞朝旌閭 其考判書文裕 父使仲子處寬生男 卽繼汝 待三女于歸 續刻表左 我宜寧南氏 自國初敬烈公諱乙蕃十一世 世襲冠冕 皆傳血屬 至汝身天闕無嗣 託以螟蛉 于其悲”

몽예는 어려서부터 계속 질병으로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의 문집 서두에 보이는 自敘의 내용과 그가 문집 곳곳에 남긴 병중감회를 읊은 詩들에서 발견된다.

幽憂子는 스무 살 무렵 기이한 병을 앓아 천지 만물을 살필 수가 없었다. 다만 헤진 책들이 눈앞에 보이니 심로가 잠시 열리면 간간이 촉발하는 바의 말이 있었으나 거의가 잠꼬대였다. 왕희지가 “비정상적인것으로 어찌 성덕의 일에 참여하리오.” 하였으니 아! 그런 경우인 것을 알겠구나. 계사년(1717, 25세) 선달 그믐에 쓴다.¹⁰

自敘의 全文이다. 여기서 몽예는 자신을 幽憂子라고 지칭하면서 어려서부터 奇疾을 앓아 온 사실과 문집을 엮게 된 간략한 경위를 서술하였다. 병중에도 오로지 독서에만 몰두하였던 정황을 확인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자신의 언어가 모두 잠꼬대[夢囈]와 같다 하여 문집의 題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①

十年獨抱幽憂疾	십년동안 홀로 남모르는 병을 앓았나니
百代誰憐歷落心	백대 후에 누가 울적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리오
斜日爬頭牕外望	기우는 해에 머리를 긁으며 창 밖을 바라보니
鐘峴南北杏花深	종현의 남북에 살구꽃이 질구나 (其二)

②

十年獨抱幽憂疾	십년동안 홀로 남모르는 병을 앓았나니
百代誰憐歷落心	백대 후에 누가 울적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리오

10) 南克寬, 『夢囈集』 乾, 「自敘」 “幽憂于弱歲 有奇疾 不省天地萬物 獨殘書在眼 心路乍開 間有所觸發之言語 殆夢囈也 王右軍曰 顛何預盛德事耶 嗟乎 其知之矣 癸巳除夕 書”

碁盤藥裏解相守 바둑판과 약봉지가 능히 서로 지키니
 盡日庭前無足音 종일토록 뜰 앞엔 발자국 소리도 없어라 (其三)¹¹⁾

몽예가 병중에 있음을 잘 드러내는 시이다. 4수의 연작시인데 여기에서는 그 2수와 3수만을 제시하였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한 시인의 삶의 모습이 아주 솔직히 표현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어가 평이하며 시상이 간결하고 담백하다.

①에서 기우는 해에 창밖을 바라보며 머리를 긁는 모습은 幽憂의 질병을 앓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특히 결구의 “중현의 남북에 살구꽃이 질구나”가 내포하고 있는 화사한 이미지는 시인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면서 悽然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시 전체에서 시적 화자의 시선이 방 안, 집 안으로부터 외부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은 시인의 幽疾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의 전·결구에서 십년 동안의 질병 속에서 이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바둑판과 약봉지뿐이고 종일토록 뜰 앞엔 발자국 소리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방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그의 생활이 얼마나 적절하게 쓸쓸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몽예는 기질을 앓으며 26세의 짧은 생을 살다간 인물이다. 이러한 신체적 결손이 그가 학문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데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병이라는 불행은 오히려 그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독서를 선택하게 했으며 방대한 독서와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몽예에게 놓인 이러한 신체적 제약이 다양한 문학작품을 섭렵하고 그를 통해 비판적 시각을 지닐 수 있게 하는 데에 일정 정도 동기를

11) 南克寬, 『夢嚙集』 乾, 「十年」 其二·其三

부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時代的 背景

몽예가 몸담았던 숙종 연간은 조선왕조 중 당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당쟁의 주요 쟁점이 왕실의 후계문제가 되면서 서·남, 노·소간의 당쟁이 한층 격화되는 국면을 맞고 있었다. 이즈음 조부인 남구만은 서인·소론의 영수로 종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숙종 재위기간(1674~1720) 중 일어난 여러 차례의 환국이 있을 때마다 付處와 유배, 再敍用등의 반복되는 파란과 급변을 겪어야 했었다. 따라서 그가 속한 가계 역시 이러한 시대의 풍파에 안온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었다.

몽예가 태어난 1689년(숙종 15)은 기사환국으로 정권이 급변하던 해였다. 숙종의 후궁인 소의 장씨가 아들[후일의 경종]을 낳자 곧바로 왕위 계승권자로 정하려는 것을 집권 서인이 반대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으로, 인현왕후가 폐출되고 소의 장씨가 희빈으로 봉해졌다가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1683년 경신환국 이래 집권해 온 서인이 대거 축출되며 정국이 남인 정권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 때 서인 측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노론계의 영수 송시열이 사사된 것을 비롯, 영의정 김수홍이 파직당하고, 이이명, 김만중, 김수항 등이 대거 伏誅, 또는 유배당하였다. 소론계 인사 중에서는 인현왕후의 폐출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주동자로 지목된 박태보가 흑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몽예의 집안도 조부인 남구만이 강릉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는 등의 화를 입게 된다.

이후, 실세한 서인 중에 노론계인 김춘택, 한중혁 등은 다시 인현왕후의 복위를 꾀하다가 집권 남인들에게 의해 사건의 전말이 고발되자,

1694년(숙종 20)에 집권 남인들이 숙종의 후궁이며 후일 영조의 생모가 되는 숙원 최씨를 독살하려 한다는 逆告變을 주도하여 남인 정권을 몰아내고 재차 집권하는 갑술환국을 일으킨다. 그 결과로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이미 책립되었던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으며, 남인은 완전히 정국에서 물러나게 되어 서인이 재차 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기사환국 때 사사되거나 유배되었던 노론, 소론 양 계파의 서인들이 대부분 復官 또는 재서용 되는데, 몽예의 조부인 남구만도 영의정에 재서용 되어 소론 주도의 정국을 이끌어 가게 된다. 당시 이러한 불안한 정국의 여파가 남극관의 유년시절과 얽힌 저간의 사정은 아버지인 남학명이 남긴, 『書亡兒幼時事』의 짙막한 일화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여덟 살 때(1696년, 숙종 22) 수표교 내가 머물던 곳으로 따라왔는데 하루는 아이가 들어와 내게 말했다. “나라에 필시 변고가 있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관아에 가실 때 이곳을 지나다가 제가 나와 노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들러서 들어오셨고, 사람이 없어도 또한 반드시 가만히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문 앞에 서있는데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시선이 다만 앞길에 있으니 반드시 근심이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들었는데 과연 국욕이 있어 패를 받들고 대궐로 가셨다고 하니, 그의 명민함이 이와 같았다.¹²⁾

갑술환국을 계기로 남인은 완전히 정국에서 물러나게 되고, 서인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었지만, 집권세력인 서인의 내부는 이제 더 이상 같

12) 南鶴鳴, 『晦隱集』 卷3, 「書亡兒幼時事」 “八歲時 隨余水標橋寓所 一日 兒入謂我曰 國家必有事矣 前此 祖父赴衙 過此 見兒出遊 則必歷入 不者亦必熟視不已 今兒立門前 而不一顧 視瞻只在前路 必有憂虞而然也 俄聞果有鞫獄 承牌詣闕 其警悟如此”

은 당내의 두 계파간이 아닌 완전한 이질적인 당으로써 극력 분파 되어 가는 양상을 띤다. 그 쟁점은 인현왕후 복위 계획을 세운 김춘택·한중혁 등의 치죄 여부에 관한 문제와 세자의 생모인 장희빈의 처벌에 대한 문제였다. 김춘택 등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소론의 영의정 남구만이 노론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중혁은 죽이고, 김춘택은 유배시켰다. 이후 장희빈의 처단 문제에 대해서는 소론의 대신들이 세자 보호를 위하여 완화론을 주장했지만, 결국 노론들의 준엄론에 몰려서 1701년 장희빈이 사사되기에 이른다. 그러자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 대신들이 다시 한 번 모두 축출된다. 노소간의 대립과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남극관의 사후인 1716년의 병신환국때는 노론 주도 정권으로, 1721년(경종 1)과 1722년 신임사화 때에 다시 소론 정권으로 뒤바뀌는 등의 혼란이 계속되다가 경종대를 거쳐 18세기 영조년간에 이르러 노론 일당 전제화의 과정을 밟아나간다.

이처럼 몽예는 그의 전 생애를 극심한 노소쟁론에 따라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거둬드는 가문의 영욕과 성쇠를 겪으며 살아야 했다. 그는 이러한 혼란 정국에 대한 자각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남다른 시국관과 자의식을 키워나갔다. 이것은 그대로 그의 문학 인식의 저변에 자리 잡아 作詩 및 詩·文評 등의 기록으로 체현되었다.

몽예가 활동했던 17세기에서 18세기의 문학은 다양한 변모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해 논자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안대희의 연구¹³⁾를 참고하여 17~18세기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의 큰 단계와 범주를 주요 작가별로 정리하려고 할 때 18세기 전기에 이루어진, 한시사의 흐름에 대한 이하곤의 史的 조감¹⁴⁾이 크게 도

13) 안대희, 앞의 책, 소명출판사, pp.14-22. 참고.

14) 李夏坤, 『頭陀集』 下, 「洪滄浪詩集序」

움이 된다. 그가 밝힌 詩史의 구도는 복잡한 사적 흐름이 변증법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각 사조는 앞선 사조의 병폐에 대한 부정을 통해 새로운 사조를 창조해내는 과정을 밟고 있다.

17세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송시풍을 대변하는 노수신과 황정욱의 뒤를 이어 낭만적 정감을 표현한 三唐派가 등장하게 된다. 삼당파는 개인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나 연약한 감정에 심취한 나머지 만당풍의 유태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듣게 된다. 뒤이어 등장한 이안눌과 권필은 삼당파의 한계를 극복하여 만당시풍을 정당시풍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후 정두경은 17세기 전기에서 중엽까지 활약하며 漢魏盛唐詩를 모범으로 삼아 宋詩를 깎아내리고 명나라의 복고적 詩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의 문학흐름은 낭만주의와 복고주의로 요약된다. 시인들이 배워야 할 높은 수준의 시를 상정하고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학습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복고적 성향을 지녔다고 하여 자기 특유의 개성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소재의 선택, 시어의 구사, 시법의 강구, 시체의 선택에서 복고적 양상을 띠므로써 작가의 개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양상이나 인심의 변화, 상업경제의 발달, 도시민의 생활상과 정서, 풍속의 변화, 그리고 한국적 자연경물을 實感을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복고주의를 고수할 때 이들은 당연히 후배 시인들의 비판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비평에서 시인이나 시를 평하는 잣대가 배움의 대상이 된 작가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따지는 것이었음을 보면 그 실정을 짐작할 수 있다.

삼당파 시인이 당풍을 모의한 흔적은 말할 것도 없고, 17세기 시인의

대표자격인 권필도 작시에서 의고가 기본적 창작태도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시인들은 17세기 의고적 창작경향을 戲作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가슴에서 시상을 발하지 않고 고인의 시어를 답습하였다고 비판하게 된다. 17세기에는 누구나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18세기에는 비판의 근거로 뒤바뀌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극관은 그 안에서 자신 나름의 문학관을 정립하여 논의를 펼쳐나갔던 것이다.

Ⅲ. 文學意識 形成 背景

몽예의 문집인 『夢巖集』은 70板의 많지 않은 분량이다. 乾과 坤으로 나뉘어져 있고 문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26판에 달하는 필기류 산문 「謝施子」와 1712년(24세)에 쓴 12판의 「端居日記」이다. 시는 15판으로 79수뿐이다. 여타의 문집들에 비하면 많지 않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의 필요에 의한 글은 거의 없고 온전히 자신의 뜻과 정을 스스로 표출한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문집의 완성도나 학문적 가치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집으로는 드물게 자신이 편집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여타 저자의 자손이나 문생들에 의하여 편집된 문집들보다는 신빙성이 가장 높다는 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¹⁵⁾

몽예의 산문은 크게 雜著 10편과 「사시자」 192則으로 볼 수 있다. 詩와 잡저는 乾권에 실려 있고 坤권은 온전히 「사시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사시자」와 산문에서 드러나는 기본적인 몽예의 의식은 문화 전반적인 면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詩文評은 물론이고, 문학의 조류와 언어·문자학 부분 등에서 상세한 예시를 들고 있으며, 역사적 측면의 비평에서는 객관적이며 고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당대의 여타 시문평록이나 잡록류처럼 규칙성이나 일관된 면이 없고 다소 무질서하게 나열되고 있다. 또한 문집 전체에서도 乾권에는 시가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시문평이나 독서여록 등이 부분 부분 보이고 있으니 문집 내에서도 어떤 일관된 체제와 구성을 확인 할

15) 안대회, 『한국 한시 분석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244. 참고.

수는 없다. 따라서 몽예의 문학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견해와 언급들 속에서 의식세계 형성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끄집어내어 몽예의 문학의식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식세계 형성 배경을 그가 가졌던 1) 독서에의 심취, 2) 다양한 학문적 관심의 성향을 통해 살펴보고, 중국 문학의 수용 양상을 1) 개방적 시각과 유연한 사고, 2) 明代 문학사조의 절충적 수용이라는 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몽예 개인의 학문적 경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비평안을 지닐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세계에 대한 유연한 흡수력의 일단면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意識世界 形成 背景

몽예는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가 남긴 글은 여타의 작가들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문집에 실린 글의 내용은 문학 뿐만이 아닌 천상·역학·역사·언어·문자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데, 바로 그 이유는 그의 방대한 독서량에서 찾을 수 있다. 몽예는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병을 앓았기에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은 독서로 채워졌다. 독서는 몽예에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독서의 내용을 글로 옮기고, 시의 소재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들은 그가 독서를 통해 내면의 욕구를 분출함과 동시에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통로로 사용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첫째, 몽예의 방대한 독서량과 독서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독서에 대한 결과물로 이루어진 다양한 학문적 관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몽예의 의식세계의 형성 배경을 짐작함과 동시에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문학적 지향점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 讀書에의 深趣

몽예의 독서에 대한 기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몽예집』 乾권 뒷 부분에 실린 「端居日記」이다. 「단거일기」는 몽예의 24세인 1712년에 지어진 것으로 『三國志』·『儷文集成』·『竹堂集』·『宇宙圖說』·『西厓集』·『朱子別集』·『歷代總目』·『淸陰集』·『淮南子』·『唐詩品彙』 등 약 30여 편의 독서에 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나는 눈과 가슴이 병들었는데도, 생각을 끊고 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여겼다. 마침내 일한 바를 날마다 적어서 스스로 無를 숭상하고, 有를 천하게 여김에 뜻 두었음을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삼십일을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無事]은 겨우 1/6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고요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구나. 저 명예와 이익의 분야에 급급해하는 자들을 또 어찌 꾸짖겠는가? 8월 1일에 적다.¹⁶⁾

한 달 간의 일기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남긴 後志이다. 이 글은 몽예의 독서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글을 몽예가 자신의 독서를 기록하기 위해 짓게 되었다¹⁷⁾고 밝히고

16) 南克寬, 『夢巖集』 乾, 「端居日記」, [後志] “余病目病心 患不能絕思慮 捐書冊 遂日記所事以自觀意 上無而賤有也 然歷數三十日 無事僅六之一耳 人之好躁而不耐靜 固如是乎 彼洶涌於名利之域者 又何誅焉 八月一日 志”

있다. 그러나 後志 부분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일기는 독서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단순한 일기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몽예가 이 일기를 쓰게 된 동기는 자신의 독서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평범한 일기로 출발한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몽예는 병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독서를 하는 자신의 습관을 벗어나고자 한 달 동안 날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은 단 5일 뿐이었다. 독서를 하지 않으려고 의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후 자신의 일기는 결국 독서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다. 몽예의 일상이 독서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독서가 생활화 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즉, 『단거일기』는 자신의 독서량에 대한 자랑이나, 지적인 우월함을 기록하려고 시도한 글쓰기가 아닌, 단순한 일기의 목적으로 출발한 글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일기를 써 놓고 보니 일상의 대부분이 독서였기에 독서일기의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몽예의 생활이 독서와 밀접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몽예가 접한 서적들은 매우 다양했다. 그 증거는 『단거일기』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역사서부터 문학 비평서, 철학서, 개인 문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독서 이력을 살필 수 있다. 몽예가 소홀히 여겼던 서적은 없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몽예에게 가장 중요한 서적, 즉 그가 텍스트로 삼았던 것은 經書였다. 조선의 문인들에게 경서는 보편적인 학습의 기초이자, 당연한 전범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당시 조선 문단의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몽예의 발언에 담긴 의미를 작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17) 송혁기, 앞의 논문, p.249에서 後志를 “나는 눈과 가슴이 병들었는데도 생각을 끊고 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다. 이에 스스로 볼 요량으로 날마다 일삼은 바를 적었다”라고 해석하여 『단거일기』를 독서일기의 성격으로 서술하고 있다.

諸君들은 어찌 經書를 읽지 않고서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文章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科文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만 經書를 읽고서야 가능하다.18)

몽예가 생존했던 시기는 중국의 문학론이 조선에 많은 영향을 끼친 때이다. 특히 의고문파, 당송파 등은 古文을 전범으로 삼는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추구했지만 그 고문의 대상이 진한고문이나, 당송고문이나 하는 부분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문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예는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는 모습이 아닌 기본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經書는 조선시대의 문인들에게는 기본서였으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문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간과되기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으니 당시의 문인들 중 일부는 기본을 버려두고 당시 유행하던 학풍을 습득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몽예는 바로 이러한 세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이 튼튼해야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학문 역시 그러하다. 경서에 충실해야 학문의 틀이 잡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을 일궈낼 수가 있는 것이다.

몽예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당시의 문풍의 폐단을 짐작케 함과 동시에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함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몽예는 독서의 방법에서도 깊은 탐독으로 정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18)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諸君何不讀經書 可以爲學問也 可以爲文章也 可以爲科舉也 只讀經書 可矣”

孔子學彈琴	공자는 거문고를 배울 때
師於師襄子	사양자에게 배웠는데
得音不肯止	득음을 하고서도 그만두지 않아서
得數復得志	깨달음을 얻고 다시 뜻을 얻었지
終焉得其人	마침내 그 사람을 얻기에 이르니
長身而黧黑	키는 크고 얼굴은 새카맣다
相去五百載	서로 떨어진 것이 오백년인데도
了然在吾目	그의 눈엔 선하게 되었네
讀書如彈琴	독서는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거니
六藝見聖人	육예로 성인을 바라보고
諸子見諸子	제자로 제자를 살펴보나니
皆吾室中賓	모두가 방 가운데 손님이로다
與之飲醇醪	맛좋은 탁주를 함께 마시고
與之賞奇文	빼어난 문장을 감상한다네
彼哉徵逐徒	저 부르며 쫓아다니는 무리들
卒歲相馳奔	생 마치도록 서로 내달리네 ¹⁹⁾

이 시는 1구에서 8구까지의 전반부와 9구에서 16구까지의 후반부 시상을 병치해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⁰⁾ 먼저 전반부는 공자가 사양자에게 거문고를 배운 이야기²¹⁾에 대한 진술이다. 공자는 사양자에게 거문고를 배운지 열흘이 되기 전에 그 곡조를 익혔으니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재주[數]를 얻고 뜻[志]을 얻고, 마침내 그 사람을 얻는[得其爲人] 경지에 이르게 되어, 거문고를 타면서 500년 전의 周 文王의 모습

19) 南克寬, 『夢囈集』 乾, 「讀書」

20) 시 해석과 감상은 박동주, 앞의 논문 pp.55-57 참고하여 서술했음을 밝혀둔다.

21) 『史記』 卷47, 「孔子世家」 “孔子學鼓琴師襄子 十日不進. 師襄子曰 可以益矣 孔子曰 丘已習其曲矣 未得其數也 有閒 曰 已習其數 可以益矣 孔子曰 丘未得其志也 有閒曰已習其志 可以益矣 孔子曰 丘未得其爲人也 有閒 (曰) 有所穆然深思焉 有所怡然高望而遠志焉 曰 丘得其爲人 黧然而黑 幾然而長 眼如望羊 如王四國 非文王其誰能爲此也 師襄子席再拜曰 師蓋云文王操也”

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잘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후반부는 몽예 자신의 이야기이다. 자신의 독서를 공자가 거문고 배우던 일에 비유한 것이다. 독서도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아서 먼저 儒家의 六經을 근본으로 삼아 성인의 언행을 익히는 것이 곧 성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그 다음은 諸子들의 글을 독서하는 단계이다. 독서는 곧 그 인물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남인 것이다. 깊은 독서로 諸子들과 마주하게 되니 이들을 방안의 손님으로 맞아 맛 좋은 탁주도 함께 하고, 좋은 문장을 함께 하며 그들과 소통하겠다는 표현에서 몽예의 독서에 대한 애정과 심취를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은 생이 다하도록 이러한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표명한 부분이라 하겠다.

몽예는 자신의 독서 생활을 성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 받는 공자가 음악을 배웠던 활동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몽예 스스로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공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문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처럼, 독서라는 활동 역시 그 책에서 진리를 얻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六經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조선조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몽예는 당시 문인들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안일하게 나태해져서 육경 공부를 소홀히 할 것을 근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을 통해 거듭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몽예는 마음으로 읽는 진정한 독서의 기쁨을 얻게 되니 그 감회를 작품으로 담아 표출하였다.

菀彼春木葩 저 봄 나무 숲 무성도 해라
誰援我手鵲 누가 내 손의 누추함을 이끌어주리

去之五百歲	떠나간 지 오백년 지났지만
其人曖若存	그 사람은 희미하게 있는 것 같네
何者爲此語	누가 이 말을 했던가
西蜀揚子雲	서촉의 양자운이로구나
論世而知人	세상을 논하고 사람을 알아봄은
實符鄒孟言	추 땅 맹자의 말과 실로 부합되네
曰余無所識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말하지만
往籍時披繡	옛 책을 종종 들춰보면
神明忽恍然	정신이 갑자기 황홀하여
躍出行墨間	행묵의 사이를 치고 나오니
黔皙與癯腴	검고 밝고 야위고 살찐 모습을
黯黯如可看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네
自信心眼開	스스로心眼이 열렸다 믿으나
誰將今古論	누가 장차 고금을 논하겠는가?
此樂矢不告	이 즐거움 펴서 알리지 않아도
此意安得諉	이 뜻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徘徊發孤詠	배회하며 외로운 노래 읊으니
注目層雲端	층층 구름 끝을 눈 여겨 보네 ²²⁾

이 시의 제목은 “내가 일찍이 공자가 거문고를 배웠다는 말을 매우 감명 깊게 여겨, 시로 기록한 것이 있었다. 지금 청간의 비유로 인하여 마음에 움직임이 있게 되므로 마침내 그 말을 돌이켜 그 뜻을 편다.”로 풀이된다. 시를 짓게 된 동기가 드러남과 동시에 앞서 분석한 시와 의미상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간은 서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揚子法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22) 南克寬, 『夢嚙集』乾, 「余嘗劇喜尼父學琴之語 有詩記之矣 今因青簡之喻 有戚戚焉 遂反其語 而申其義云」

인다. 1구에서 4구까지는 『양자법언』에 나오는 揚雄(BC 53~AD 18)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²³⁾ 이 부분은 양웅도 몽예처럼 공자가 거문고를 타면서 周 文王을 만났듯이 500여년을 거슬러 올라 성인인 공자와 尙友千古하는 기쁨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시제를 통해서 몽예가 『讀書』 시를 지은 이유도 공자가 거문고를 배운 사실에 감명 받아 지은 것임을 재확인 할 수 있는데, 지금 독서를 하다가 자신의 감명과 일치하는 문인의 글을 발견하게 되니 그 기쁨으로 다시 시를 쓰게 된 것이다.

5·6구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를 즐거움을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재언급하고 있다.

세상의 훌륭한 사람을 친구로 하여도 부족함을 느낀다면 옛 사람에게 접근한다. 옛 사람의 시를 읊고, 옛 사람의 책을 읽으며, 그 사람에 대해 모른다면 되겠는가? 그래서 시대배경을 논하는 것이다. 이것이 옛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방법이다.²⁴⁾

맹자는 옛 사람이 남긴 글을 읽음에 있어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古籍을 읽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즉,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 사람이 쓴 작품이나 저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몽예가 “論世而知人”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몽예의 깊고 넓은 독서의 축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의 내용은 작자의 직접적인 논평과 감흥을 표현한 것이다. 자신은 아는 게 없다고 검사를 하였지만 옛 책을 읽다보면 행묵의 사이를

23) 揚雄, 『揚子法言』卷7, “春木之苞兮 援我手之鶉兮 去之五百歲, 其人若存兮”

24) 『孟子』, 「萬章 下」 “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

차고 나오는 성인들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다는 표현에서 은근한 몽예의 학문적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자신을 공자나 양웅과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에 견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몽예의 자부심은 그 다음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자신은 깊은 독서를 통해 心眼이 열렸으나 주변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으니 더불어 古수를 논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비록 즐거움은 말할 데가 없지만 이 뜻은 도저히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 시를 짓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홀로 배회하며 상념에 젖어 구름을 바라보는 시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몽예는 六經之學에 근본을 둔 다양하고 폭 넓은 독서를 통하여 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다. 병으로 인해 세상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으니 독서만이 그의 답답한 일상생활의 탈출구 역할을 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연스레 몽예의 삶은 독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의 주된 일상은 독서가 되었다. 그의 독서는 방대하고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六經을 근본으로 삼아 선진제자로 나아가야한다는 확실한 관념이 있었고 스스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독서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행간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읽고 체득하는 독서를 지향했다. 작품의 저자와 실제로 만나는 것과 같은 독서가 이루어져야 천고의 성현들과 맥이 닿아 드높은 학문적 경계에 다다를 수 있음을 몽예는 인식했던 것이다.

2) 多様な 學問的 觀心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서욕이 있기 마련이다. 독서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 때문에 끝이 없는 공부과정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문인들에게 독서는 학문의 시발점이자, 학문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활동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몽예 역시 굉장한 독서광이었고 스스로가 독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몽예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에 바깥출입이 드물었고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은 독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단지 병으로 인한 활동적 제약 때문에 독서에 심취했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 이유는 몽예가 문집에서 보이고 있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언급들 때문이다. 그는 독서를 통해 문학뿐만이 아니라 언어·문자학·역사·나아가 과학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색을 하였고 그것을 글로 옮겼다. 글로 옮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바탕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식의 습득은 결국 다방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몽예가 문집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후대의 문인들에게도 종종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몽예는) 불행히도 기질을 앓아 문을 닫고 책을 읽기를 6년 동안 하였다. 山海經, 地誌, 세계 각국의 책들과 秦漢隨唐 이래의 패설과 기이한 글까지도 익숙하게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박람하고 해박함은 근래의 글 쓰는 자들 중에는 드물다.²⁵⁾

25) 洪重聖, 『芸窩集』 卷6, 「南進士哀辭」 “不幸得奇疾 閉門讀書凡六年 山經地誌九丘八索 與夫秦漢

몽예의 문집이 지리서부터 다양한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것이 후대의 문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몽예의 저술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내용은 天文曆法 분야이다. 이러한 면은 당대와 후대에도 몽예 학문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되었다. 黃胤錫은 몽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몽예의 역법의 재능은 인정하고 있다.²⁶⁾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천문학 및 曆學은 대개 帝王學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이 제정하여 반포하는 역법을 받아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독자적이고 본격적인 학문적 모색이 이루어진 예는 많지 않다. 이것은 성리학 가운데서도 우주론보다는 심성론 방면으로 치중된 16세기 이후의 학문 풍토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남극관의 천문역법 논의는 그 이론의 완성도나 타당도를 떠나 학문적 관심 자체로서도 의미를 따져 볼 만하다.

몽예는 서양 역법인 時憲曆이 이전의 전통적 역법인 大統曆보다 우수함을 인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시헌력은 서양 선교사 Adam Shall에 의해 만들어져 1645년 淸의 순치제가 반포한 역법이다. 조선 역시 시헌력 제정과 동시에 관련 역법을 도입해 들어와 1653년 효종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시헌력 도입은 당대로서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상사적 사건이다. 서양학문의 성과가 국가적으로 공인된다는 점, 明代의 역법을 버리고 淸代의 역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 古代 聖人이 제정한 예악제도가 부정된다는 점, 천지운행 및 우주론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점 등이 유가 전통 및 주

隋唐以來稗說奇詮 靡不淹貫浹洽 窮日夜不倦 其博覽該識 近世操觚家罕有也”
26) 黃胤錫, 『頤齋全書』, 『頤齋遺稿』 권 12, “閱南克寬集中(中略)其人頗有才藝 能出於文章曆數諸家 沾沾自喜 然而以一介黃口 乃敢嘖轢前輩持論 傲狼有其祖遺風 蓋於尤翁谷雲農巖則名之 於文谷畏齋則字之 於許穆李潛尤極推尊 而朴世堂之文可伯仲八代家 其擬議可有倫哉”

자학적 체계, 중화주의 등 이전 시기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지적 기반을 흔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던 것이다.²⁷⁾

몽예는 이러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헌력에 반대하는 金始振(1618~1667)의 견해를 비판하였는데 그 근거를 살펴보면 몽예 의식의 기저를 엿볼 수 있다. 몽예는 무조건적인 ‘古’에 대한 숭상과 ‘諸夏’를 높이는 태도를 비판한다. 일본도나 서양의 안경처럼 좋은 것은 들여와야지 그것이 ‘今’이고, ‘夷’라고 해서 무작정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김시진이 주장하는 ‘시헌력에서는 24절기 간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정이 그런 것을 억지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는 논리로 비판한다.²⁸⁾

즉, 몽예가 강조한 것은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역법이다. 역법의 사용은 천지운행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인간의 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改曆이 이루어져 왔는데 명분과 고정 관념에 가로막혀 기존의 역법보다 뛰어난 역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몽예의 인식은 뒷부분에서 고찰할 개방적인 시각과 유연한 사고라는 배경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몽예는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家風에서 오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몽예의 조부인

27) 송혁기, 앞의 논문, pp.252-253. 참고.

28) 南克寬, 『夢嚙集』 乾, 「金參判曆法辨辨」“(前略) 君子師古而貴諸夏 非有浮慕也 爲其善之聚焉 不曰舍是而無足取也 蓋唯其善者 從之耳矣 如金公之言 凡商周之下 嵩洛之外 舉皆泯泯惛惛 拋擲埋沒焉可也 夫如是則象數性命之辨 多出六藝之後也 日本之刀 安南之角 西洋之鑼鑼 實衣履天下也 皆將揮而斥之而後爲得歟 不然 何獨疑於是哉 夫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者 日與天會之期也 二十四氣者 隨其運行之度而爲節焉者也 故日之在極南 冬至也 在極北 夏至也 自南而北 自而南而中焉者 春秋之分也 乾坤易簡之理 如是焉止矣 在昔中國治曆之說 果有出乎是者歟 然其自春而秋也 每遲而不及 自秋而春也 每疾而過之 餘節之傳於其間者 隨而紓促焉 此固不期然而然也 乃舊曆 春分後天幾日 秋分先天幾日 實墨守一時之法 而不知合變之宜也 二分之所以爲分者 以其晝夜之平分也 今徒循筭數之均整 而不恤天時之刺謬 則焉往而非分也哉 先時後時之誅 將惡乎施而可歟 語曰 物之不齊 物之情也 欲強而齊之得乎 此其說之惑也 (後略)”

남구만은 민요와 시조를 漢譯하는 작업을 통해 민족의식에 대한 긍정을 표출했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후기 朝鮮風이라고 불리게 된 독창성을 중시하는 우리 문학론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는 받는다.²⁹⁾ 몽예가 조부의 문집을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의 역사인식 형성 과정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몽예의 역사 인식적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예는 「사시자」 외에 문집의 乾권에 수록되어 있는 8수의 「續東都樂府」에 잘 드러나 있다. 「속동도악부」는 金宗直(1431~1492)의 「東都樂府」를 이어 보완하여 지어졌다. 여기에서 몽예는 신라의 건국과 역사, 화랑들의 충절, 믿음과 의리, 정절과 효도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몽예가 살던 시대는 왜적과 청의 침략을 피폐해진 국토, 흑정에 시달린 백성, 이에 따른 신분제의 혼란 등 극도로 어지러웠기 때문에 朴·石·金의 3성이 번갈아 평화롭게 왕위를 계승한 신라의 역사적 사실이 그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나라가 위급할 때 화랑들이 용감히 나서서 충성을 다한 것을 보고 충성과 신의가 넘치는 사회를 꿈꾸었을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시의 조선을 불의의 나라로 인식하여 이를 날카롭게 풍자, 비판하면서도 막연한 울분과 자탄을 토로하는데 그치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진다면 그를 통해 진정 덕스럽고 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몽예는 「속동도악부」를 통하여 표출하였던 것이다. 몽예가 사용한 東都라는 명칭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의 역사인식 태도는 자국에 대한 주체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사시자」의 시문평 등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한어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

29) 김영주,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2003, p.223. 참고.

침 해 주는 단서가 된다.

몽예는 언어와 문자학에 관한 견해도 피력하고 있는데 특히 국문에 대한 인식이나, 중국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의 비교를 음성학 측면에서 까지 폭 넓게 고찰하고 있다.

① 『서경』에는 조사가 매우 드물다. 『좌전』에는 조금 더 있고 후에 더욱 많아졌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속어 한 구절마다 거의 과반을 넘으니 우리나라 말이 또한 삼분의 이일(2/3) 뿐만이 아니다.³⁰⁾

② 우리나라 말의 선후는 중국의 것과 다르다. “꽃을 보고 버드나무를 꺾다.”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자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꽃과 버드나무를 먼저 말하고 뒤에 ‘보다’와 ‘꺾는다’를 말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³¹⁾

③ 우리나라의 이른바 ‘토’라는 것은 중국의 조사이다. 之於是 ‘의’라고 말하고 乎는 ‘오’라 하기도 하고 혹은 ‘고’라 한다. 耶는 ‘아’, 또는 ‘가’라 하기도 한다. 也는 ‘다’이고 兮는 ‘여’이다. 음이 모두 대략 비슷하다. ³²⁾

④ 우리나라는 물건의 이름 끝에 반드시 ‘이’자를 붙인다. 중국어에서 ‘아’자를 붙이는 것과 같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방언으로 고양이를 ‘고이’라고 불렀다 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다만 소리가 조금 빨라져서 하나의 글자로 합해졌다.³³⁾

30)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尙書 助辭甚稀 左國 稍衍 後益多 至近世 俗語一句 幾過半矣 東語又不啻三之二也”

31)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東語能所先後 與中國異 如看花折柳 先言花柳 後言看折是也”

32)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我國所謂吐 中國之助辭也 之於曰의 乎曰오 或稱고 耶曰아 或稱가 也曰다 兮曰여 音皆略同”

33)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我國物名終語 必有伊字 如漢語兒字 高麗史云 方言呼猫 爲高伊 今猶然 但聲稍疾 合爲一字”

⑤ 우리나라의 언해자훈은 이미 많이 변화하여 달라졌다. ‘대’는 ‘키’라 했고 ‘소’는 ‘효근’이라 했고 ‘용’은 ‘미르’라 했으며 ‘성’은 ‘재’라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성내’을 ‘재안’이라 하고, ‘견’을 ‘가히’라 하다가 지금 ‘개’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현상은) 고양이를 ‘괴’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³⁴⁾

몽예의 언어에 대한 인식은 조사와 음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중국어와 우리말의 음운과 조사에 대한 비교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했음이 드러난다. ②와 같은 중국어와 우리말의 어순에 대한 비교는 물론, ③에서처럼 우리나라의 현토와 중국어의 조사에 대한 비교도 빼놓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음운이 현재와 많이 상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음운학의 史的 고찰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몽예의 학문적 관심은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역법에서부터 역사,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릴 수 없을 정도의 해박한 식견을 자랑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방대한 양의 독서에서 쌓여진 것이겠지만, 그 기저에 있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몽예의 학문적 태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中國 文學의 受容 樣相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조선의 문단은 내적으로 성숙된 힘에 의한 변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수입된 사조가 크나큰 영향을

34)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我國諺解字訓 已多變殊 大曰키 小曰효근 龍曰미르 城曰재 今皆不用 猶稱城內曰재안 犬曰가히 今稱개 與猫之稱괴同”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宣祖이래 明의 古文辭派의 사조가 유입된 것이 우리 문단에 唐詩風의 유행을 촉진한 것처럼 17세기 말엽에서부터 시작하여 18세기에 성하게 일어난 새로운 사조 역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조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은 16세기의 말에 의고파를 수입하였다. 이후 18세기 후반까지 의고적 창작론은 맹위를 떨쳤다. 의고적 창작론을 통해 고전의 높은 예술적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시 문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거창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의고파가 취한 방법은 언어적 모의였다. 모의를 통해 고전의 성취에 도달한다는 이 논리는 이내 당송파에 의해 비판되었고 당송파의 비평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선에 수입되었다. 당송파가 수용될 무렵 공안파 역시 수입되어 조선의 문단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⁵⁾

이처럼 중국의 문학론에 의해 다각도로 급변하는 조선의 문단은 작가 자신의 문학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노선을 택하게 된다. 의고파의 대표적 작가로는 윤근수를 꼽을 수 있으며 당송파의 대표적 작가는 김창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안파는 조선 문단에서 한 명의 대표적 작가에 의해 주장되어지기 보다는 여러 명의 작가들에 의해서 조금씩 소개가 되면서 반의고적 바람의 밑거름이 되어 18세기 후반 조선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³⁶⁾

바로 이 공안파의 문학론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공안파 비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인물이 몽예이다. 몽예는 공안파 뿐만이 아니라 의고파, 당송파에 대한 견해도 자신의 문집에 피력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그의 문학의식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35)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출판사, 2007. p.439. 참고.

3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논지의 전개상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생략하도록 한다. 공안파의 조선 문단에 대한 영향력은 강명관, 위의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몽예의 중국 문학 수용 양상을 통해 그가 성취하고자 했던 문학의식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몽예의 개방적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살펴보기 위해 몽예가 접한 중국 문학에 대한 언급 등을 토대로 몽예가 수용한 문예 이론의 범위와 대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明代 문학사조의 절충적 수용양상을 의고파, 당송파, 공안파의 문학론에 대한 몽예의 인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몽예의 중국 문학에 대한 인식 태도는 그의 문학의식의 형성 배경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당시 조선 문단과 중국 문학에 대한 연관관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開放的 視覺과 柔軟한 思考

몽예는 중국 문학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문집 곳곳에 드러내고 있다. 그가 접한 중국 서적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당시의 글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李卓吾나 錢謙益, 湯顯祖 등에 대한 발언은 그 내용을 떠나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몽예가 이처럼 많은 양의 중국 서적을 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몽예의 조부였던 남구만의 영향이 있었다. 남구만은 당시 소론의 영수로서 신분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귀한 서적을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남구만의 장서인이 찍힌 원굉도의 문집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³⁷⁾

이처럼 환경적으로도 쉽게 중국 문학을 접할 수 있었던 몽예는 취향에 맞는 서적을 골라서 습득하기 보다는 먼저 독서를 통한 이해를 한

37) 강명관, 앞의 책, p.84. 참고.

후에야 자신의 문학적 취향에 맞게 장점과 단점을 취하였다.

李贄가 출현하자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 창광하여 꺼림이 없는 말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마땅히 죄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본시 氣機의 變衰虛幻 때문이고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모두 바깥을 제어하는데 어두우니, ‘中을 기른다.’는 한 구절만 가지고 반드시 발하면 곧바로 이루는 것을 제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길거리 가게에 진열된 보배를 움켜쥐고 달아나고 싶지 않는 자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 무리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반드시 움켜쥐고 가야만 옳을 것이니, 어찌 이치에 어긋난 일이 아니겠는가. 우계[成渾]가 원황의 편지에 발문을 쓰면서, “세상이 타락하면서 요사스런 일이 일어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정말 정확한 논의이다.³⁸⁾

李贄(1527~1602)는 李卓吾를 말한다. 탁오는 그의 號이다. 明代의 유학자지만 전통적인 유교관을 거부하고 자아 중심의 혁신성을 제창한 급진적인 양명학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몽예가 언급한 猖狂無忌憚之言은 인간의 본능을 긍정했던 이탁오의 사상을 의미한다. 주자학적 전통에서는 滅人欲存天理라는 명제 아래, 천리는 모두 공적인 것으로 긍정되고, 인욕은 모두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마땅히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탁오는 개인[私]과 욕망[欲]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리적·본능적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기초이자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로 보았다. 이탁오는 각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38)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李贄之出 風俗一變 猖狂無忌憚之言 皆自此人當爲罪首 是固氣機之變衰虛幻 非人力也 然其論皆昧於制乎外 所以養其中一句 必以發而直遂 爲第一義 今夫塗之人 見列肆之貝 其不欲攫而歸也者 鮮矣 循此輩之論 必攫而後可也 豈不悖哉 牛溪跋袁黃之書曰 世衰妖異 一至於此 斷之確矣”

피하는 자기 보존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자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사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더 적극적인 권리로 주장되고 옹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념은 현실적 영역에서는 사적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며, 모든 개인의 욕망이 실현될 때 인간 사회는 차별 없는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표현되었다.³⁹⁾

허균을 제외하고 이 시기까지 이탁오를 언급한 사람은 李宜顯(1669~1745)이 유일한테, 그는 이탁오의 사상에 대해서는 어떤 비평적 언급도 없었다.⁴⁰⁾ 그런데 몽예는 어떤 저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탁오의 자료를 접한 뒤에 그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몽예의 발언은 상당히 진척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몽예는 이탁오의 사상이 몰고 온 충격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풍속의 변화가 모두 이탁오 개인에게서 온 것은 아니며 세상의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하여 이탁오의 영향력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몽예의 이탁오 평가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개인의 욕망에 대한 긍정, 실현”이라는 이탁오의 주장 때문이다. 이탁오는 개인의 사사로움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강조했는데 바로 이 점을 몽예는 강력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몽예의 논리는 단순하다. 개인의 욕망대로 한다면 도덕적 책임이 불분명해져서 결국은 사회가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이다. “바깥을 제어하는데 어둡다.”는 표현이 바로 사회의 혼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몽예 뿐 만이 아닌 당대의 여타 문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견해였음을 성혼의 말을 인용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39) 정재현, 『이탁오 사상에서의 생성과 욕망의 문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0) 강명관, 앞의 책, p.218. 참고.

몽예의 이탁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긍정적인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 문단에 이탁오에 대한 사상의 유입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원굉도의 內詞에 “아침에 서궁의 약속에 맞춰가니 저녁에 경연관 보내 章句를 풀어 올리게 하네.”라 하고, 또 이르기를 “검은 비단 주머니에 언관의 아뵤 오래 쌓이니 금당에게 분부하여 차례로 시행하라 하네.” 『도화인』에서는 “구름 속에는 자연히 맑은 격이 적고 다만 규방 고운 여인 의지하여 선인이 되려네.”라 하고, 또 이르기를 “잠깐 사이 천안이 웃는 줄 모르고 자꾸 숨을 내뿔다 빛 읽은 줄에 끼었다고 말하네.”라 하였다. 만력 중년의 기후를 상상할 수 있다.⁴¹⁾

위에서 언급했듯이 몽예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袁宏道(1568~1610)를 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굉도는 이탁오의 문학관을 계승한 인물로 공안파 문학론의 대표자이다.

『內詞』는 원굉도의 첫 시집인 『敝篋集』 권1의 『擬作內詞』 첫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의 일부를, 『桃花引』은 『瀟碧堂集』 권7의 『도화유수인』 10수 중 2수와 3수를 인용한 것이다. 『내사』는 만력 18년(1590) 공안현에서 지은 것으로 그가 만력 16년 겨울에서 17세기 초 과거 응시를 위해 북경에 갔을 때 당시 조정의 타락에 느낌이 있어서 지은 것이라 한다. 『도화유수인』은 원래 ‘仙家の 竹枝詞’로 쓴 것인데 신선을 황제로 비긴 것이다.⁴²⁾

41)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袁中郎內詞曰 朝來剛赴西宮約 莫遣經筵進講章 又曰 阜囊久積言 官奏 分付金璫取次行 桃花引曰 雲裏自然清格少 但憑閨豔作僊人 又曰 年來不識天顏笑 只道頻噓列 缺光 可想萬曆中年氣候也 觀萬曆後人名及字 亦可識風氣之變也”

42) 강명관, 위의 책, pp. 218-219. 참고.

이 두 작품은 모두 明代 황제의 타락과 정치의 퇴폐상을 그린 것으로 짐작된다. 아침에 서궁의 약속에 가고 저녁에 경연관에서 章句를 풀어들리라는 것이나, 언관의 상주를 환관에게 처리하는 것, 미인과 잠자리에 들어 신선이 되는 황제의 생활 등은 모두 정사를 폐기하고 쾌락에 몰두 하는 황제의 삶을 비꼰 것이다. 물론 몽예는 원굉도의 시에 대해 비평한 것이 아니고, 원굉도의 시를 통해 명말의 정치적 풍토를 읽어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김창협이 이런 시풍을 들어 원굉도의 사유를 근거부터 부정했던 것에 비한다면, 몽예의 시각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몽예가 『폐협집』과 『소벽당집』에서 시를 인용할 정도로 원굉도를 꼼꼼히 읽고 있다는 것이다.

몽예는 원굉도의 공안파 외에도 경릉파를 섭렵했으며 조선 문단에는 낯선 明末清初 문인들의 문집까지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안파와 경릉은 재주가 비슷하다. 그러나 성취한 바를 가지고 논한다면 종성이 더 낫다. 탕약사 또한 일류인인데, 시가 그의 문장보다 낫다. 전겸익의 평가는 편향된 것이 많아 근거 삼을 수 없다.⁴³⁾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안파 보다는 鐘惺을 거두로 하는 竟陵派에 우위를 두고 있다. 그 당시로서는 생소한 湯顯祖와 錢謙益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는 발언이다.

공안파는 전후칠자의 문학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한 유파로 원중도, 원굉도, 원중도 세 형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이 살았던 지명을 따서 公安派로 불린다. 공안파의 문학론은 “문학은 결국 참된 마음의 표현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대에 따라 문학이 변천하므로 옛

43)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公安 竟陵才具等耳 然論所就 鍾殊勝之 湯若士亦一流人 詩勝其文 錢氏扶抑多偏 不可據也”

문학의 규범을 모방하는 일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론이다.

경릉파는 공안파의 폐단인 내용이 空疏하고 생각이 천박한 장난기가 짙은 시풍으로 흘러가는 것을 비판하며 등장한 유파이다.⁴⁴⁾ 종성(1574~1625)이 주도하고 譚元春(?~1631)은 후배로 종성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다. 경릉파가 참된 詩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공안파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精神적인 면을 중시하여 古詩에서 性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범의 학습을 어느 정도 강조했다라는 점이 공안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공안파와 경릉파의 뒤를 이어 새로운 시풍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錢謙益(1582~1664)이다. 號는 牧齋, 虞山이다. 전겸익 창작론의 입지점은 전후칠자의 의고적 창작론은 비판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는 원래 이몽양과 왕세정을 추종하였으나 뒤에 李流芳과 접촉하여 唐宋八大家의 존재와 歸有光의 문학론을 접하게 되었으며, 또 湯顯祖 역시 사람을 통해 전겸익에게 당송고문과 元代의 시인을 학습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겸익은 의고문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산문에서는 당송고문을 전범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시 방면에서 전겸익은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원중도를 직접 만나 공안파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가 의고문파에 대해서 매우 과격한 비판을 가하게 된 것은 공안파 이론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겸익은 공안파가 특정한 문학적 전범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宋·元의 시가를 전범적 존재로 설정하였다. 그의 이론은 탈의고적이면서도 당송고문을 전범으로 삼았던 것이고, 또 創新을 주장하면서도 허황한 데 떨어지지 않았다. 요컨대 전겸익의 이론 속에는 공안파와 당송파의 논리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⁵⁾

44)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319. 참고.

45) 강명관, 앞의 책, pp. 222-223. 참고.

몽예의 전겸익에 대한 학습은 보다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겸익이 明詩를 편집하여 자신의 비평을 실은 『列朝詩集』을 꼼꼼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집인 『初學集』과 나아가 『有學集』까지 섭렵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학집』은 문장의 기세가 갑자기 바뀌었지만, 핵심은 존재하니 시는 도리어 예전보다 낫다.⁴⁶⁾

전겸익의 문집인 『初學集』은 명나라가 망하기 전인 崇禎16년에 간행된 것으로 明代에 쓰인 것을 모은 것이고 『有學集』은 청나라 康熙 3년에 간행된 것으로 청대에 들어서서 쓰인 글을 모은 것이다. 전겸익에 대한 독서는 몇몇의 문인들의 독서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이 시기에 이미 전겸익에 대한 문집이 수집 되어 읽히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虞山은 (杜詩의 晴天卷片雲에서) 卷을 養으로 보았고 竟陵은 (劉文房詩의 客心暮千里에서) 暮를 慕로 보았으니 모두 와본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생각에 부림을 받은 것이니 이른바 상대가 없는 것은 없다[無無對]라는 것이다. 두 글자가 마땅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다만 원래의 편을 취해서 자세히 봐야한다. 생각이 과반이다.⁴⁷⁾

몽예는 중국 문예사조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항상 객관적인 시각에서 꼼꼼하게 학습하여 잘못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비판하였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겸익에 대

46)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有學集 氣燄頓替 牙角獨存 詩却勝少日”

47)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杜詩 晴天卷片雲 劉文房詩 客心暮千里 虞山以卷爲養 竟陵以暮爲慕 皆據訛本 仍爲好奇之念所使 所謂無無對也 不論兩字當否 只取元篇細觀 思過半矣”

해서도 단점을 지적한 위의 인용문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몽예는 기본에 충실한 학문적 태도의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의 중국 문학사조에 대한 인식은 변별적으로 수용되어 질 수 있었다.

서위의 오언고시는 두보의 시를 본 떠 체제를 변화시킨 것인데, 침한한 재주가 또한 절로 그 변화에 잘 맞았다. 칠언은 섬미하여 아름답지 않다. 석공[원굉도]의 고시는 모두 일결을 만한 것이 없다. 칠언절구는 서씨의 성조가 있고, 율시는 대략 비등하나, 크게 보아 미치지 못한 것이 많다.⁴⁸⁾

원굉도의 시가 서위의(1512~1593) 영향을 받고 있으나 대체로 서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다. 실제로 원굉도는 서위의 문학에 열렬히 몰두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⁴⁹⁾ 정확한 비교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몽예가 중국 문학의 연원과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다. 몽예는 전후칠자·당송파·공안파·경릉파·전점익은 물론이고, 당시로서는 처음 보이는 김성탄⁵⁰⁾과 탕현조까지 읽고 있다. 그는 이 시기까지 중국에서 전해졌던 명대 문학, 그리고 그 시대에 막 수용되기 시작한 淸初의 문학에 비상하게 주목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조선의 비평계와 창작계가 중국에서 수용된 새로운 비평과 창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과하였다.

48)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徐文長五言古詩 效韓 杜變體 沈悍之才 亦自稱之 七言纖靡不佳 石公古詩 俱無可稱 七言絕句 有徐氏聲調 律詩略等 大較不及者多”

49) 강명관, 앞의 책, p.223. 참고

50)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選詩 至虞山 評文 至聖歎 可謂盡善矣 古未嘗有也”

2) 明代 文學思潮의 折衷的 受容

16세기에 등장한 사림파는 성리학이라는 사상론을 등에 업고 道本文末의 문학관념을 제창하였다. 사림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시련의 과정을 통해 정치의 전면에 서게 된다. 그 시점이 대략 明宗·宣祖朝이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사림파 내부에도 점차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고 학설과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분화가 발생하였다. 道學을 통해 국가를 사상적으로 성숙되고 굳건한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는 책무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정치의 전면에 서게 되면서 국가의 典章과 문물제도 및 事大交隣의 외교에 필요한 문장을 맡아야 할 책무도 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전후칠자의 수용과 관계되거나 그 시기에 활동했던 문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환경은 국운이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었기에 외교상 문장이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조선 문단에 전후칠자가 수용되어 발전하게 된 배경과 明代의 중국문단에 전후칠자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사이에는 유사점이 발견된다. 첫째, 정치적·사회적 관점에서 사림파가 당시 조선의 정치상황에서 수행하였던 時政批判, 혹은 현실비판적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전후칠자도 明代의 당시 현실 속에서 유사하게 수행했었다는 것이다.⁵¹⁾

둘째, 사림파가 관각체 문풍을 극복하려는 시도으로써 선진양한과 성당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후칠자 역시 明代 初葉부터 중국 문단을 주도해온 臺各體 문풍을 극복, 청산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필진한, 시필성당’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이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대

51) 원종례, 『明代前後七子の 詩論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문장을 창작했다는 점은 동일한 궤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는 氣를 주로하고 문은 體를 주로 한다. 우리나라 중엽 이전의 문장은 體制를 알지 못하여 끝내 감히 중국에 견줄 수 없었다. 국초의 윤희, 남수문, 사육신, 서거정, 성현 등 여러 공들은 비록 광박하고 깊은 맛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관각체라 부를 수가 있었다. 김일손은 한 시대를 울렸으나, 그의 문집을 보면 표현은 비리하고 기운은 거칠어 산잡하고 질서가 없으니 논할 것이 없다. 윤근수, 신희 이후 비로소 문장을 아름답게 조탁할 줄 알아 점차 정밀해지고 좋아졌는데, 名家로서는 장유, 이식, 그리고 근일의 이민서는 꼭 明을 배운 것이 아니면서도 실로 그렇게 된 근거가 있는 분들이다. 나는 왕세정과 이반룡의 화가 중국에서는 컸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파천황의 공이 있으니, 시동으로 여겨 칭송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⁵²⁾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文에 대한 몽예의 인식이다. 文은 體를 주로 한다는 것인데, 왕세정과 이반룡이 들어오기 전 조선 문단은 文의 體制에 관한 비평적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왕세정과 이반룡은 의고적 작풍을 유행시킴으로써 중국문학에 큰 화가 되었지만, 조선에서는 파천황의 공이 있다는 말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왕세정과 이반룡의 의고적 창작론은 조선 문단에 산문의 작법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몽예 자신이 의고파의 의고적 창작론에 대해 찬동을 표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비평사적 맥락에서 왕세정과 이반룡의 수용이 갖고 온 효과를 예리하게 지

52)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詩主氣 文主體 我朝中葉以上之文 以不知體製 終不敢擬中國 國初尹清卿 南景質 六臣 徐成諸公 縱乏宏博深湛之致 猶可謂館閣體 金濯纓聲震一世 觀其集 辭俚氣麤 散雜無章 他無論也 尹, 申之後 始知藻繪琢磨 浸以精好 名家如谿 澤 及近日李西河 不必學明 而實有所以然者矣 余嘗謂王 李之禍 中國大矣 而在我國 則有破荒之功 宜尸而祝之也”

적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파가 말하길 “시의 기운은 시대가 갈수록 감소하는 법이다. 때문에 옛날에는 기운이 두터웠고 지금은 박하다. 시로 표현하지 못하는 바가 없음은 시대가 갈수록 더욱 성해지는 법이다. 때문에 옛날에는 다 표현하지 못한 정이 있었고, 지금은 묘사하지 못하는 경이 없다.”고 하였으니, 역시 지극한 논의이다. 그들의 시는 정을 펼쳐내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도 반드시 일상적인 말을 피하여 그 길이 도리어 가정·용경보다 좁았으니 가소롭다. 그러나 몇 개의 난숙한 고사를 기록하고 몇 개의 만들어져 있는 자안을 쓰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³⁾

몽예가 공안파와 후칠자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가정·용경은 후칠자를 의미한다. 가정·용경 연간에 활동했던 이반룡, 왕세정을 필두로 하는 후칠자는 기세가 힘차고 큰 秦漢의 산문과 감성이 풍부한 盛唐의 시가를 숭상하는 문학적 성향을 지닌다.

몽예는 글의 첫머리에서 공안파의 시론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찬동을 표한다. 그러나 뒤이어 공안파가 의고파의 폐단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의고파보다 창작 방법이나 표현면에서 좁아졌음을 비판한다. 몽예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표현에서의 난삽함이다. 원광도를 위시한 공안파들은 상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한 나머지 오히려 의고파에 비해 더욱 협소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성의 일반적인 항어를 부정하고 새로운 언어를 추구한 결과 언어상용의 폭이 더 좁아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몽예의 견해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53)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公安謂詩之氣 一代減一代 故古也厚 今也薄 詩之無所不極 一代盛一代 故古有不盡之情 今無不寫之景 亦是至論 其詩主發抒而必避恆語 其途反隘於嘉隆可笑 然視記得幾箇爛熟故事 用得幾箇見成字眼者 觀過斯知仁矣”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마지막 문장의 비유 방식이다. 몽예가 공안파와 의고파인 후철자 중에서 어느 시론에 우위를 두고 있는 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論語』의 「里仁」 7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類대로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仁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⁵⁴⁾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분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朱子는 이에 대해 군자는 사랑이 지나친 것이 허물이고 소인은 너무 잔인한 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면 사람의 仁함과 不仁함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몽예가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공안파의 폐단과 의고파의 폐단에 비유하여 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 것이다. 공안파의 문학관은 의고파의 문학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공안파는 의도적으로 의고파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했다. 그렇기에 공안파가 펼칠 수 있는 논의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공안파의 문학론은 그 폭이나 깊이가 알 수 밖에 없었다. 몽예는 이러한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의고파의 폐단은 기성화된 시어의 사용을 답습하는데 있다. 의고파의 목표는 전범으로 삼은 대상을 학습하여 그들의 시풍을 본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고파의 학습은 시어를 모의하고 잘 만들어진 고사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바로 이 점이 의고파의 폐단이다. 이러한 폐단을 놓고 본다면 몽예는 난숙한 고사와 만들어진 자안을 쓰는 의고파에 비해 난삽하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공안파의 시론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54) 『論語』, 「里仁」, 7장, “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그 동안 몽예에 대한 연구는 남극관을 전통·의고 보수파로 인정하여 김창협 이론의 혁신성을 부과하기 위한 반대편의 인물로 설정되어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을 놓고 미루어 본다면 남극관이 완전한 의고주의자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록 그가 앞부분에서 왕세정과 이반룡을 비롯한 의고파의 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단순히 그 발언만으로 그를 의고주의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주로 집안에서만 활동했던 남극관의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발언들은 그가 당시 변화되는 문단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빠른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체를 바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몽예의 원굉도 또는 공안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이색적인 것이다. 그의 공안파에 대한 비평은 이전 시대의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창협이 『원굉도집』의 내용에 주목하여 원굉도를 부정했다. 몽예 이전에는 원굉도의 문학 비평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원굉도의 작품세계를 경릉파와 비교한다는 것은 최초의 시도였던 것이다.

근래 시를 일컫는 자들은 강서·北地·경릉 등 제가에게서 실로 은택을 받고 우러러 그들의 학문을 숭상했으니, 망극한 은혜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비평하는 자들의 입에서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자, 또 밖으로 그들의 단점을 공격하여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니, 진실로 예원의 모적이다.⁵⁵⁾

곧 당대 즉 17세기 말 18세기 초기의 시론가들이 의고파와 경릉파의 비평과 작품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비난이 가

55) 南克寬, 『夢巖集』坤, 「謝施子」 “近日稱詩者 於江西北地竟陵諸家 實沾巧鑽仰 有罔極之恩 而見其不厭於談者之口 又外攻其短 若不與焉者 眞藝苑之蠹賊也”

해지는 것을 보고는 그러한 현실에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의고적 창작론을 배우고 따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막상 비평계에서 비판을 받자 말을 바꾸는 당시 문인들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몽예는 그런 작가들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문학적 연원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한 것이다.

몽예의 중국 문학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유연적이다. 그 이유는 맹목적인 옹호나 절대적 비판이 아닌, 상대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에 따라 그들의 문학적 성취가 달라지는 것이다. 역시 몽예의 유연한 사고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몽예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그의 인생 후반기는 직접 문학 활동에 참여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신체적으로 그의 몸을 집 안으로 고립시켰지만, 자신의 문학 활동을 위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했던 여타의 작가들을 비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V. 文學世界的 特徵

몽예가 살았던 17~18세기 조선 문단의 양상은 그간 김창협의 비평과 평가에 의거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창협의 문학론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과 독창성 때문에 높이 평가 되었으며 그가 이룩한 문학적 성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의 문학론은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높이 인정되어 왔고 오늘날의 연구자들에 의한 논급 역시 적지 않다.⁵⁶⁾ 그러나 김창협의 비평이 당대에 발표되어 논의될 때는 다만 새로운 시각에 의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창협 비평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었음은 충분히 추론 가능한 사실이다.

몽예는 바로 김창협의 문학론이 지닌 한계를 예리하게 지적했으며, 따라서 김창협과 대립되는 비평들이 문집의 많은 부분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양각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국내 문인에 대한 평인데, 김창협이 당대의 보편적인 비평을 전복시키는 언급을 주로 했는데 반해, 몽예는 김창협의 비평을 다시 재전복시키는 발언을 하여 당대의 문단 양상에 대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김창협과 몽예의 비평관 대립이 노론과 소론의 당쟁으로 인한 불편한 관계라는 뒷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단순히 감정적 발언의 성격을 지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몽예의 비평이 가지는 논리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의도화된 입론이었으며 몽예와 같은 시각의 다른 문인들의 비평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몽예만의

56) 김창협의 문학 비평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두원, 「농암 김창협의 文論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강혜선, 「김창협 古文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송혁기, 「김창협 문학론의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독자적인 노선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몽예의 비평은 김창협
의 노선으로 구성되어진 17세기~18세기 문단을 새로운 노선으로 구성
할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몽예의 비평 대상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고려, 신라 등 시대를 넘나들
며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전 시기 뛰어난
작가를 인정받은 大家부터 시작해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문학적 성
취를 지닌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아우르고 있다.

비평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학적 기준과 취향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
다. 따라서 같은 대상을 두고도 정반대의 비평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다. 몽예의 비평은 당대의 대체적인 흐름과 뜻을 같이 하기도 하고 때
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가를 평한 부분을
살펴보면 몽예 문학론의 지향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몽예 문학세계의 특징을 작가에 대한 평을 근거로 논의
하고자 한다. 작가의 범위는 국내 문인으로 제한하며 김창협의 비평과
함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김창협과 몽예의 비평은 극과 극을 달릴
정도로 대립되는 면이 많고, 같은 작가를 완전히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본다.

첫 번째 특징은 氣를 중시한 비평관으로 정두경과 이규보에 대한 비
평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특징은 尙古정신을 중시한 내용으
로 허목과 최립, 유몽인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
특징은 탈주자학적 인식의 옹호인데, 박세당에 대한 몽예의 견해를 근
거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1. 氣 中心의 批評觀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몽예의 비평의 특징 중 하나로 꼽혔던 부분이 바로 氣格을 중시하는 태도이다.⁵⁷⁾ 몽예가 직접적으로 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氣라고⁵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 작품을 논평한 부분을 살펴보면 氣를 기준으로 삼아 서술한 것이 적지 않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이 바로 東溟 鄭斗卿(1597~1673)에 관한 비평이다. 몽예와 김창협이 비평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아 왔다.

정두경은 당대 문단에서 적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가 문단에 끼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었기에 여러 비평서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정두경은 조선 중기 문학사에서 詩와 文, 양 방면으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며 당시의 문학경향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사상적으로 유교와 도교를 섭렵한 관각문인이었으며 특히 復古主義 문학론을 실천한 인물로 유명하다.

중국 明代 前後七子의 문학론은 우리 조선에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수용되었다. 전후칠자의 저작은 당시 조선 문단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적으로 당대의 많은 문인들에게 읽히고 그들의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두경 역시 전후칠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두경은 전후칠자에 대한 학습을 주장하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明代 문인에 대한 논평, 選集 작업 등 적극적인 수용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주창하였던 문학적 노선이 바로 당대에 파급된 明代 복고주의 문학 사상과 동일하고 이를 실제 창작을 통해 보여주므로 그를 복고주

57) 박동주, 앞의 논문.; 이창용, 앞의 논문.

58)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詩主氣 文主體”

의 문학의 중요 인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두경의 문학관은 당대 작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⁵⁹⁾

정두경은 氣力이 四海를 삼키는 듯 하고 눈에는 千古의 작가가 보이지 않으며, 문장은 일대의 태산북두와 같다. 그 손으로 秦漢盛唐의 유과를 열었으니, 이른 바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홀로 선교를 편 것과 같다.⁶⁰⁾

洪萬宗(1643~1725)이 평한 부분이다. 홍만종의 위와 같은 지적은 정두경의 문학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정두경의 당시 문학적 위상을 가늠케 한다. 진한성당의 유과를 열었다는 것은 명대 복고주의 파와 문학적 주장을 함께 한다는 것인데, 홍만종은 정두경이 이를 열어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정두경을 달마에 비유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참다운 복고정신의 구현을 실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홍만종이 정두경을 평가하는 기준이 氣力の 우수성에 있다는 점이다.

송혁기에 의하면, 氣는 작가의 내면에 온축되어 있다가 창작 과정에 발동되어 감상자에게까지 감수되는 작가의 정신역량 및 문세, 미감까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흔히 문학의 영역에서 특히 창작과 감상을 위한 요결로 거론되는 것이 意와 氣, 그리고 法이다. 意는 작가가 그 작품에 담고자 하는 이념·주장·정서이며, 法은 意와 氣를 적절하게 실어내기 위해 창작과정에서 선택·운용하는 여러 층위의 준칙 및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상호 관계에서는 意와 氣가 法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두는 예는 거의 없다.⁶¹⁾

59) 남은경, 「정두경 문학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60) 洪萬宗, 『小華詩評』 “鄭東溟斗卿 氣吞四海 目無千古 文章山斗一代 其手擎秦漢盛唐之派 可謂達磨西來 獨闡禪教”

정두경의 氣를 높이 평가한 예는 홍만중 뿐 만이 아니라 당대 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南龍翼(1628~1692)은 장유의 말을 빌려 “정두경의 시는 요란하게 울리는 우레나 벼락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두렵게 한다.”⁶²⁾고 하였으며, 金萬重(1637~1692)은 “정두경은 씩씩하고 위엄 있는 기세가 뛰어나지만 간절하고 한가로운 뜻은 어긋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는 얻고 두 개는 얻지 못했으니 歌行체는 마땅하지만 五言체는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古調의 한사람일 뿐이다.”⁶³⁾ 라고 하여 부분적 성취를 인정했는데 바로 그 성취면이 氣勢라는 점이다.

몽예 역시 정두경의 문학이 가지는 氣의 성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명의 시는 마땅히 본조의 으뜸이 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思致로써 그의 시를 몹시 비방하였다. 요컨대 氣는 완전하고 聲은 洪大하여 높고 먼 경지를 치달려서 모든 강물을 들이키고 뱉을 수 있는 역량과 천군을 밀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온갖 것을 능멸하여 업신여길 수 있는 象과 八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상이 있다. 삼백 년 이래로 그와 나란할 만한 자도 없었는데, 하물며 그를 앞설 수 있으랴! 저들은 황정건과 진사도에게는 하인이고 종성, 담원춘에게는 고용되어 표절을 일삼았다. 잔달고 불완전한 식견으로 옹혼 아 건한 흉금을 엿보면서 도리어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주워 모아 한껏 비방한 중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니, 이른바 도깨비불을 끼고 해와 달을 혈뜯는 격인 것이다.⁶⁴⁾

61) 송혁기, 「김창협 비평의 산문사적 의의」,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2005, p.677. 참고

62) 南龍翼, 『壺谷詩話』 “東溟晚出 莫有能抗之者 谿谷每云 聞鄭詩來 則有如雷霆霹靂 令人自怕”

63) 金萬重, 『西浦漫筆』 “東溟發揚蹈厲之氣勝 懇惻優游之義乖 故得其一而不得其二 宜於歌行而不宜於五言 然東方古調一人而已”

64)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東溟之詩 當爲本朝第一 妄庸者 多以思致嫻之 要之 氣完聲洪 憑高驚遠 有吐納百川之量 排斡千鈞之力 凌暴萬類之象 揮斥八極之意 三百年來 未有能並之者 況先之

몽예는 정두경을 조선 제일의 시인으로 꼽고 있다. 그 이유는 정두경 문학에 나타난 氣와 聲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思致로 비방하였다.’는 표현은 김창협이 발언을 겨냥한 말이다. 몽예는 사치의 문제를 가지고 정두경 문학을 헐뜯은 김창협이 발언에서 기와 성의 월등함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을 모의자라고 꾸짖는 김창협 자신도 표절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김창협이 정두경 비판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두경은 늦은 세대에 나와서 한나라 위나라의 고시와 악부시가 본받을 만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歌, 行 등 장편은 이백, 두보를 따르고 율시, 절구 등 근체시는 성당의 작품을 모방하여 만당의 소식, 황정건을 전범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 의도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는 재주와 기력이 실로 읊취헌 등 여러 공에 미치지 못한 데다 일찍이 세심히 독서하고 시의 도를 깊이 탐구하여 깊은 사색 속에 스스로 터득하고 확충, 변화시켜 본 적이 없이 그저 한때의 意氣로 옛사람들의 자취를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그 시가 비록 청신하고 뛰어나서 세속의 악착스럽고 진부한 기운이 없기는 하나, 정언묘사에 있어 옛사람의 심오함을 엿보기에 부족하고 자유분방하고 도도하게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詩家의 변용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요컨대 그가 이룩한 성취는 권필과 이안눌을 뛰어넘지 못한다.⁶⁵⁾

乎 彼輿僂於黃, 陳 備剽於鍾譚 以瑣尾摘裂之識 窺雄深雅健之胸 反欲掩撫糞壤 逞其謗傷 所謂挾鬼
 燐而訾日月也”

65) 金昌協, 『農巖集』, 「雜識 外篇」 “鄭東溟出於晚季 能知有漢魏古詩樂府爲可法 歌行長篇 步驟李杜律絕近體 摸擬盛唐 不肯以晚唐蘇黃作家計 亦偉矣 然其才具氣力 實不及挹翠諸公 又不曾細心讀書 深究詩道 沈潛自得 充拓變化 徒以一時意氣 追逐前人影響 故其詩雖清新豪俊 無世俗齷齪庸腐之氣 然其精言妙思 不足以窺古人之奧 橫驚旁驅 又未能極詩家之變 要其所就 未能超石洲 東岳而上之也”

김창협은 정두경의 문학에 대하여 일단은 긍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정두경이 후대에 태어났으면서도 문학에 있어서 전범의 대상을 탁월하게 취사선택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곧 그는 정두경이 朴間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詩道를 自得하여 변화를 얻기 보다는 일시의 意氣로써 전인의 자취를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밀한 표현과 묘한 생각의 면에서 옛사람들이 그려낸 오묘한 경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 학습 방법으로서의 ‘學唐’ 표방은 정두경 본인은 물론 그와 교류하거나 사제관계를 맺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추구한 것이다. 인용문 첫 머리에서 전제하고 들어간 정두경의 이러한 學詩 지향에 관한 언급은 김창협이 이들의 비평문에 어느 정도 직접 접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정두경 등이 영향 받은 명대 전후칠자에 대해서 “作詩할 때 故事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唐 이후의 말은 쓰지 못하도록 하니, 이는 너무도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하며 그 외형적이고 편협한 학당 논리를 신랄하고도 명징하게 비판한 대목에서 김창협이 선을 긋고자 했던 경계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작가 자신이 ‘神解妙悟’을 드러냄도 없이 남의 작품의 意象이나 표현을 거짓으로 빌려 오는 의고주의에 대한 비판은 김창협 비평의 중요한 주제였다. 물론 정두경이 표방한 학당이라고 해서 외적이고 거짓된 의고를 지향한 것이었을 리는 없고 ‘妙悟’ 체험의 강조나 성정 발현의 인식은 정두경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시 학습의 과정으로 “당시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김창협도 부정하지 않았던 대명제였다. 문제는 그 배우는 방법이다. 정두경 및 그 주변 인사들의 학당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비판적 언급을 빌 것도 없이 그들 스스로의 현장 보고에 잘 드러나 있다. 唐 이전

의 시에 나오지 않는 시어를 썼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지적에 탄복하는 일화에서 이들이 唐詩를 학습의 한 방편으로서 배우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창작 준칙이자 지향해야 할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 학습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逼唐’이니, ‘唐詩 속에 섞어 놓아도 구별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표현이 최고의 찬사로 쓰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학습과 평가에 있어서의 그러한 면이 시 창작에 연결될 때 鈍賊에 가깝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김창협이 학당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 놓이는 것이다.

김창협이 생각한 진정한 學唐은 외적형식이나 시어의 모의가 아닌, 학문 수양에 의한 정신경계이다. 명대 의고주의자들의 잘못된 학당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듯이, 唐詩의 표현의 기발함, 음향의 청량함을 배우기보다는 내적 축적에서 우러나오는 ‘從容閒雅’, ‘濶厚淵澹’, ‘和平悠遠’의 풍격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음향이나 시어 구사 역시 창작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적 축적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지 특별한 전범을 흉내내고 거기에 얽매어서 학습하고 추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두경에 대한 김창협이 비평은 學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김창협이 지적한 정두경 시의 단점은, 시인으로서의 자질인 재능과 氣力이 부족하고, 창작과 관련한 학습인 ‘細心讀書, 深究詩道’와 창작 역량의 숙련인 ‘沈潛自得, 充拓變化’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정제된 표현과 오묘한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精言妙思’의 측면에서 고인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숙련된 창작 역량의 자유로운 구사로서의 ‘橫驚旁驅’ 역시 최상의 경지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오히려 정두

경 자신이 지향했거나 그의 시에 대한 여타의 비평에서 장점으로 거론되곤 하는 사안들이어서 섬세하게 그 의미를 따질 필요가 있다.

먼저, 창작역량과 독서의 연관은 정두경 본인도 매우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독서하지 않고는 훌륭한 문장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나아가 폭넓은 독서야말로 창작의 실질적인 원동력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대단한 독서광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협이 그를 가리켜 세심한 독서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독서의 대상이 서로 상이한데서 오는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두경이 중시한 서적들은 『史記』·『吳越春秋』·『越絕書』·『左傳』 등의 역사서와 『詩經』·『楚辭』·古樂府, 그리고 성당시 등으로 이른바 ‘문필진한, 시필성당’의 모토에 부합하는 것들이었다. 반면 김창협의 경우, 위의 것들을 포함하되 송대 朱子書에 깊이 침잠하였고 명·청대 문예서들에도 심도 있는 이해를 보인다. 또, 독서의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정두경의 경우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면이 강조되는 반면, 김창협은 내적 수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독서의 양태 또한 博覽廣記와 精深沈潛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창협이 비판한 지점은 바로 이러한 독서 대상과 목적, 양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서는 내적 자득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창작의 역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典故의 자료로서 많이 읽고 외우는 것은 앞 사람의 그림자를 좇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다음은 재능, 기력 및 창작 역량의 숙련된 구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들은 정두경 시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서 오히려 그의 최대 장점으로 언급되는 면이다. 홍만중을 비롯한 정두경의 교유 인물들의 비평에서 그럴 뿐 아니라 정두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평한 김만중의 경우에도

기력의 측면에서 정두경을 인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김창협이 비평도 이러한 세간의 평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다는 재능, 기력의 면에서는 박은에게, 숙련된 창작역량의 자유로운 구사에 있어서는 권필, 이안눌에 못 미친다고 평했을 뿐이다. 즉, 정두경에게 있어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재능, 기력과 창작 역량의 면을 가지고 말한 다 해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맥이다.

이러한 평가에서도 氣力이라고 했을 때의 함의와 비평 기준에 있어서 그것에 부여하는 비중의 면에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氣力은 다분히 기운차고 남성적인 陽剛의 면모와 그에 걸맞는 거침없는 창작역량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문맥에서 사용하는가, 도학적 정신 역량의 내적 充溢과 그 도저한 發揚으로 사용하는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입장을 달리 해서 보면, 기력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사상 내지 의취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

정두경이 詩史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대체로 전자의 의미에서의 强健한 기세에 의해서이다. 이는 그가 前代 三唐派 시인에 대해서 氣力과 格調가 부족한 면을 단점으로 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섬세하고 綺麗한 특징을 지닌 삼당파에 반하여 정두경 시는 우리 詩史에서는 드물게 남성적이고 奇健하였다. 그의 시에 劍·龍·虎 등의 소재가 많이 등장한다든가, 변방의 풍광과 尙武 意氣를 노래한 것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변방에 유배 가는 것이 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그 자신의 언급 역시 이러한 풍격과 연관된다.

김창협이 경우, 當時의 의고적 唐詩風에는 반대하였으나, 삼당파 시인에는 호의적인 평을 한 바 있고 일상 현실과 동떨어진 俠氣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실도 정두경과의 기본적 변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學詩의 측면에서 김창협이 정두경 시에 대한 비평은 당시 유행하던 명대 전후칠자의 영향을 겨냥한 것이다. 전후칠자의 영향은 이른바 唐詩風이 한창일 때부터 이미 편재해 있었고, 김창협 당대에는 그 말폐적 현상을 도정하고 있었다. 이를 문단의 중요한 부정적 현실로 진단하고 새로운 문풍으로의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김창협의 의도였던 것이다. 아울러, 내면적 진실성이 배어있고 그것을 溫厚, 閒雅하게 작품화한 시를 높이는 김창협의 비평 기준이, 奇健하고 다소는 비현실적인 상상력에 뛰어난 정두경의 시풍을 그 ‘체험의 진정성’이라는 면에서 문제 삼은 것이고, 거기에는 양자가 가진 기본적 미의식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이다.⁶⁶⁾

결론적으로 몽예와 김창협 인식의 차이는 문학적 성취의 지향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지만 기저에 깔린 비평 의도도 무시할 수 없다. 김창협은 의고주의적 복고풍을 극복해야만 하는 당면과제가 있었기에 복고풍의 대표자인 정두경 문학의 한계를 지적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몽예는 의고주의 문학론이 당시 문단에 끼친 영향력을 인정했기에 정두경 문학의 비판점 대신 그의 문학적 공로를 인정하고 특히 氣의 기준에서 그를 뛰어나게 평가했던 것이다.

한편 몽예가 정두경을 옹호하면서 김창협을 겨냥한 발언 중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김창협 무리를 표절자로 비판한 부분이다. 몽예는 정두경에 대한 김창협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창협이 정두경에게서 문제점을 삼은 부분을 김창협 역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은 황정견과 진사도에게는 하인이고 종성, 담원춘에게는 고용되어 표절을 일삼았다. 잔달고 불완전한 식견으로 옹혼 아건한 흥금을 엿보면서 도리어 얼토당토않은 말들을 주워 모아 한껏 비방한

66) 송혁기, 「김창협 문학비평의 당대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제18집, 2000. pp.500-507. 참고

증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니, 이른바 도깨비불을 끼고 해와 달을 헐뜯는 격인 것이다.⁶⁷⁾

몽예 역시 김창협과 마찬가지로 의고파와 당송파·공안파·경릉파·전겸익까지 읽고 있었다. 또한 앞에서 논의했듯이 몽예는 조선 문단에서 중국 문학의 영향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접한 김창협 문학 역시 중국 문학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협 무리가 지닌 의고주의적 성향을 몽예는 더욱 예리하게 지적한다.

영남에서 새로 새긴 『농암집』 서문을 보았는데, 한유, 구양수를 비방하고 헐뜯은 말을 깎아 없앴으니 대개 스스로 떳떳하기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허균, 이민구가 처음으로 가정·용경 때의 시를 배웠으나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더니 서석 형제가 소선으로 그것을 수식하고 김창협 무리가 당나라 사람의 古詩를 참고하자, 변화가 극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말류는 점차 부괴해져서 쇠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김창협의 시는 그 아우와 비교해 본다면 그 근력이 못하지만 또한 자못 아정하다. 그들이 성취한 것을 신중하게 논해 본다면, 김창협은 屢江의 후예이고 김창흡은 경릉파의 아류이다. 누강은 아름다운 곳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자세히 보면 단지 결찬이 공미할 뿐이고 그 정신의 빛이 흘러들어간 것을 볼 수 없다. 경릉파는 정경이 궁벽하고 음조가 애잔하여, 전겸익의 공격은 비록 과하기는 하나 대개 스스로 취한 것이다. 왕세정과 이반룡이 우리나라에 점차 전해지자 시를 배우고 아울러 문장까지 겸한 사람이 몇 사람 되었다. 전적으로 문장을 배운 사람은 윤근수, 신희, 김상헌, 박미,

67)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彼輿僿於黃, 陳 備剽於鍾譚 以瑣尾摘裂之識 窺雄深雅健之胸 反欲掎撫糞壤 逞其謗傷 所謂挾鬼燐而訾日月也”

신익성, 신취, 김석주가 그들이고 장유 또한 대략 물들었다. 김창협과 김창흡 무리가 뒤에 나와 더욱더 교활해져 중국의 논의를 조금 듣고는 그 연원을 자못 숨겼으나, 요컨대 그 권력은 벗어나지 않는다.⁶⁸⁾

몽예는 김창협을 婁江의 후손이고, 김창흡을 경릉파의 아류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누강이 지칭하는 바는 현재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박동주의 논문에서는 누강을 왕세정을 지칭하는 말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몽예가 지은 시⁶⁹⁾에서 누강의 문학 경향을 공안, 경릉파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누강이라는 지명이 왕세정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 등⁷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강명관은 그의 저서에서 누강을 唐順之(1507~1560)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王愼中의 문집 『遵巖集』에 당순지를 지칭하여 ‘唐婁江’이란 표현을 쓰고 있음을 들었다.⁷¹⁾

몽예는 김창협과 김창흡이 의고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하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도 의고주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인용문 마지막에 “그 연원을 숨겼으나 그 권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표현은 몽예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듯하다.

68) 南克寬, 『夢巖集』 乾, 「端居日記」 “見嶺南新刻農巖集序文 刊去詆訾韓 歐語 蓋亦自知其無倫也 許筠, 李敏求始學嘉隆詩 而未備 瑞石兄弟文之以騷選 金昌協輩又參之以唐人古詩 遞變極矣 末流漸浮怪 衰相已見矣 金詩視其弟筋力不如 亦頗雅靚 卽其所就而篤論之 大金婁江之苗裔 而小金竟陵之流亞也 婁江非無佳處 細看只是結撰工美 不見神采流注 竟陵境僻音哀 虞山之掎擊雖過 槩自取也 王, 李之波東漸 學詩而兼文者 上數子 專學文者 月汀, 玄軒, 清陰, 汾西, 東淮, 春沼, 息菴也 谿谷亦略有染焉 兩金輩後出轉點 稍聞中土之論 頗諱淵源 要不出其圈襪也”

69) 南克寬, 『夢巖集』 乾, 「幽憂無所事 漫披詩表 雜題盡卷」

70) 박동주, 앞의 논문, pp.64-65.

71) 강명관의 주장은 이상주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상주의 연구에 의하면 “누강은 지금의 江蘇省 吳縣 남쪽이며 太湖의 지류다. 귀유광의 고향은 昆山이며 당순지의 고향은 武進인데, 모두 지금의 강소성에 속해 있다. 고문의 유파를 논할 때 누강과 하면 당순지와 귀유광 등의 당송고문파를 지칭한다.”라고 하여 누강을 당순지로 보고 있다. (이상주, 「담헌 이하곤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51.)

正祖가 농암의 문장을 평하기를 “농암의 문장을 누가 推重하지 않겠는가? 나 역시 몹시 좋아한다. 그러나 자신이 늘 명나라 사람의 口氣를 극력 피한다고 하고서도 종종 면하지 못한 곳이 있다.”⁷²⁾라고 하였으니 김창협 역시 의고주의적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김창협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창협이 극도로 비판하는 의고주의적 색채를 자신이 스스로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몽예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몽예의 시선으로 바라 본 김창협의 비평은 그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합리적인 논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몽예와 김창협의 비평의 대척점은 다시 이규보의 비평에서 드러난다.

이규보가 우리나라에서 시로써 이름을 떨친지 오래되었다. 전대의 여러 사람들이 또한 모두 가히 따를 수 없는 경지라고 한 것은 그의 재주가 민첩하고, 경험한 것이 넓고 두터우며, 다른 사람과 많이 응수한 경험으로 빠르게 작시하기 때문에 일시에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능히 독창적인 시어를 만들 줄 알아 전인의 시어를 답습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재주가 있다고 여겨 가히 시인의 재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학식이 아주 비루하고 기상이 용렬하여, 체격은 비속하고 성조는 잡스러우며, 시어가 천근하여 뜻 또한 얕다. 그의 고시와 율시, 절구 수 천백편 중에 하나도 청명하고 쇠락하고 고고하고 평활한 뜻을 말한 것이 없다. 그가 스스로 기빠하며 남이 말하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은 대개 모두 서응의 나쁜 시일뿐이니, 이는 참으로 엄우가 말한 “열등한 시마가 폐부에 들어

72) 『正祖實錄』 19년 11월 7일, “農巖文章 孰不推重 予亦甚好之 而自家每稱力避明人口氣云 而往往有免處”

온 것”이라고 하겠다.⁷³⁾

위의 인용문에서 김창협은 이규보가 앞서 사람이 사용한 시어를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독창적인 시어를 구사한 것까지는 시인의 재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전고나 시어의 차용 같은 언어모의를 주로 하던 의고주의적 시작태도를 배척한 농암으로서는 당연한 평가이다. 하지만 이규보에 대한 독창적인 시어를 구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열등한 詩魔가 폐부로 들어온 부류’라고 결론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가 배척하고자 한 것이 의고주의적 시작태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규보에 대한 비판은 학식의 비루함과 기상의 웅렬함에 있다. 기상은 타고난 기질에 관계되는 천부적인 측면이므로, 핵심은 학식, 즉 學詩의 비루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규보는 엄우가 말한 것과 같이 학식이 비루하여 입문이 바르지 못하고 또한 입지가 높지 못한 결과로 체격이 비속하고 성조가 잡스러우며 또한 시어가 친근하고 뜻 또한 알아 서응의 나쁜 시와 같다는 것이다. 농암이 이규보를 서응에게 비유한 이유는 이규보가 백운소설에서 사령운의 “池塘生春草”에 대해 폄하하고, 서응의 “一條界破靑山色”의 구를 높이 평가한 것 때문이다. 사령운의 시구는 세월의 무상한 변화 앞에서 느끼는 인간적 고독감을 못 독 위에 피는 봄풀로써 묘사한 것으로, 사물의 변화양태에 인간의 감정을 기탁한 시다. 이는 사물의 작용법칙인 천기에 깊이 체득하여야 시작에 능할 수 있다는 김창협의 주장과 일치하는 시구이다. 이에 비해 서응의 시구는 경물의 묘사에 그치고 있어 사물을 통한 감정이입의 강

73) 金昌協, 『農巖集』, 「雜識 外篇」 “近見壺谷所編箕雅目錄 稱李奎報文章爲東國之冠 余意此論殊不然 奎報詩擅名東方久矣 前輩諸公 亦皆推爲不可及 蓋其材力捷敏 蓄積富博 爭多鬪速 一時莫及 又能自造言語 不蹈襲前人以爲工 亦可謂有詩人之才矣 然其學識鄙陋 氣象庸下 格卑而調雜 語瑣而意淺 其古律絕數千百篇 無一語一句道得清明灑落高古宏闊意思 其所沾沾自喜 以爲不經人道語者 大抵皆徐凝之惡詩 眞巖羽卿所謂下劣詩魔 入其肺腑者也”

도가 사령운의 시보다 약하다. 또한 서응의 시구에는 氣가 一條처럼 뻗쳐 있어, 김창협이 선호하는 沖和閒靜하고 寬平和雅한 것이 아니라 激詭하고 矯激한 시풍을 띠고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농암의 성정론은 본능론적 眞에 있지 않고 수양론적 正에 있기 때문에, 서응의 矯激을 배격하고 사령운의 寬平和雅를 선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암이 천기의 체득을 詩作의 전제로 삼은 만큼, 실재하는 사물의 형상과 그 변화양태에 인간의 감정을 기탁하여야 진실한 감정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령운의 시보다 서응의 시를 높이 평가한 이규보에 대해 학식의 입지가 높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규보의 체격이 비속하고 성조가 잡스럽고 시어가 천근하며 뜻도 나쁘다고 폄하한 것이다.⁷⁴⁾

이에 대해 몽예는 역시 반론의 제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규보에 대한 몽예의 평가는 비교우위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대는 崔崧(1539~1612)이다.

최립의 문장은 비록 깊고 짙 차있는 듯하지만 문사 운용이 막혀 있고 난삽하다. 그저 옛사람의 자구를 모방하는 데에 조금 재주가 있을 뿐 편장의 대체를 깨닫지 못했다. 이치도 볼 만한 것이 없어 이규보와 비교하면 멀리 미치지 못한다. 김창협이 최립을 칭송하고 이규보를 비판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니 또한 가소롭다.⁷⁵⁾

최립에 대한 몽예의 비평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이규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창협의 비평이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시각 차이를 보이

74) 최현태, 「농암 김창협 시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51. 참고.

75)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崔簡易文 雖似沈實 然命辭局澀 只效古人字句小巧 不曉篇章大體 理致又無可觀 比李相國 不及遠矣 金昌協稱崔而詆李不遺力 亦可笑也”

는 부분이 바로 최립에 관한 부분이다. 최립은 김창협 이전에는 별로 주목 받지 못한 작가였고, 후대에도 역시 문학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다. 따라서 최립을 높이고 이규보를 낮춘 김창협의 비평은 보편적인 문학의 흐름에 정면으로 대비되는 면이 있었고 몽예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규보에 대한 평을 살펴보면 대체로 走筆과 新意에 초점을 맞추어 호평이 이루어졌고 시의 풍격은 豪放함을 칭찬하는 언급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이규보의 문집을 읽고 그것을 전범으로 삼았음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몽예 역시 이규보의 문장을 꼼꼼하게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의 文에 ‘높은 누각 큰 바다에 정면으로 임하여 푸드득 나는 듯, 물 또한 軒櫳을 치려는 듯’이라고 하였는데 박은의 ‘땅은 푸드득 날려고 하는 듯’이라는 시구는 아마 여기서 나온 것인 듯하다.⁷⁶⁾

인용문의 이규보의 문장은 『夢說』에 등장하는 말로 朴闇의 『營後亭子』의 시구가 이것을 전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이 문장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규보의 문장이 조선 문인에 대한 영향력을 작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창협의 박은에 대한 호평을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교묘하게 김창협의 비평을 비꼰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은은 비록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웠지만 천부적인 재능이 뛰어

76)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李相國文曰 高樓正臨大海 翼翼翬飛 水亦將拍干軒櫳 朴仲說地如拍拍將飛翼之句 豈出此歟”

나게 높아 성조와 체격에 속박됨이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시어가 청혼하였고 격력 또한 뛰어났다. 그 興會가 이른 곳에서는 天真이 넓게 퍼져 있고 氣機가 넘실거려 마치 사람의 힘으로는 범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것은 아마도 황정견과 진사도에게 구속된 바가 아닌 것 같다.⁷⁷⁾

박은의 시는 비록 황정견과 진사도를 사사하여 범도로 삼았으나 그 神情와 興象은 당나라 시인과 같았다. 이것은 모두 천부적인 재능이 높았기 때문이다.⁷⁸⁾

박은은 소식의 시풍을 이으면서 가장 宋詩的인 특질을 구현한, 황정견, 진사도 이하 일군의 시인들을 지칭하는 江西詩派의 시법을 수용한 海東江西詩派의 한 사람이다. 일찍이 박은에 대해서는 여타의 시인들도 ‘千古希音’이라고 평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김창협만큼 최고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박은시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당시의 정경과 송시의 사실을 겸한 唐調宋格에 있다. 김창협 역시 그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몽예는 박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비평을 남기고 있지는 않다.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이규보의 영향권 있었음을 시사하였고, 다만 “挹翠當爲石洲之匹”이라고만 언급하였다. 박은의 문학적 성취를 권필의 문학적 성취와 동등한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몽예가 긍정적으로 바라 본 정두경과 이규보의 문학론의 공통점은 氣力의 우수성이다. 이러한 몽예의 비평은 그 이전 시기와 당시 문인들에게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더구나 전범을 삼아 학습하는 형태에서 의고

77) 金昌協, 『農巖集』, 「雜識 外篇」 “挹翠軒雖學黃, 陳 而天才絶高 不爲所縛 故辭致清渾 格力縱逸 至其興會所到 天真瀾漫 氣機洋溢 似不犯人力 此則恐非黃, 陳所得圍也”

78) 金昌協, 『農巖集』, 「雜識 外篇」 “挹翠詩 雖師法黃, 陳 而其神情興象 猶唐人也 此皆天才高故爾”

주의 경향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몽예는 바로 이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점을 비판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비평이론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의고주의를 통한 자구모의는 이차적인 문제이다. 작가가 내면에 함축하고 있는 氣象이 뛰어나다면 그것이 가지는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작가였음을 몽예는 강조했던 것이다.

2. 尙古精神의 重視

16세기의 양난으로 인한 민간 교류의 확대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중국 문학론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전 시기에 비해서 당시의 문인들에게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문학론과 서적들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그간 믿고 따랐던 법도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의 텍스트를 두고도 그것의 의미를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에 따라 분파가 나뉘기 시작했다. 특히 몽예가 살았던 시기에 유입된 韓愈의 문장은 그가 주장한 고문운동과 함께 당시의 문인들에게 새로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반향은 당시의 문인들에게 인식방법의 차이에서 세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된다.

첫째, 윤근수를 대표적으로 하는 무리로 전후칠자 수용에 적극적,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한 문인들이다. 이들은 한유의 문장을 西漢의 古氣를 계승하였다고 보고 창작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겼고, 한유와 유종원 등이 중심이 된 고문운동의 성격을 명대 문풍에 대한 반성과 대안제시로 파악하였다.

둘째 부류는 唐宋古文派로, 명대 전후칠자와 그 영향에 의해 생긴 조선 문단의 秦漢古文的 성향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문인들이다.

이들은 한유의 문장을 ‘師其意, 不師其辭’의 관점에 입각하여, 형식주의적 모방이나 답습을 부정하는 새로운 문풍의 시작으로 보았다. 아울러 한유의 고문운동의 성격을 唐代 이전의 駢文을 대신할 산문을 제시한 새로운 문풍의 진작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 부류는 한유의 문장을 六經이나 先秦諸子の 문장보다는 못하지만 그 이후의 문장[唐宋이하]보다는 낫다고 평하여 차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六經古文派가 그들이다.⁷⁹⁾

본고에서 주목할 부류는 마지막 부류인 육경고문파이다. 위에서 서술했던 바 이들은 先秦의 육경고문을 가장 이상적인 문장으로 꼽고 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육경 뒤로는 하강의 역사가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문학사에 대한 평가 역시 육경고문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류의 정점에는 許穆(1595~1682)을 중심으로 한 남인 계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허목은 17세기 중후반에 주로 활동한 문인으로 남인 문단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허목의 학문적 관심과 추향은 古經에 치중되어 있었고 당시 주자성리학의 이기심성론 보다는 역사·지리·물산 등에 걸쳐 박학의 면모를 보이며 尙古 형상이 지적 상상력의 한 축을 이루는 면 등이 그가 육경고문파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⁸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몽예의 문학론 역시 육경고문파의 이론과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몽예는 육경을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인식하였고 그것에 대한 학습을 부단히 강조했었다.

사실 육경고문은 한문 문화권 내에서 일반화된 사고 틀을 반영하는 것이니 모든 문인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육경을

79) 신승훈, 「前後七子 受容과 朝鮮中期 文苑의 反響」, 『동양한문학연구』 제16집, 2002.

80) 송혁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허목 계열 남인 문단의 산문론」, 『민족문학사연구』, 2005, p. 81. 참고.

제외한 선진양한의 고문, 예컨대 『左傳』·『史記』·『國語』·『莊子』·『戰國策』·『漢書』 등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갈래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허목은 육경 이외에 자신이 실제 산문 학습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좌전』·『국어』·『전국책』·『사기』·사마상여·양웅 등을 들었다.⁸¹⁾ 이러한 면에서 허목의 산문 학습 대상은 몽예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된다. 앞에서 논의했던 「余嘗劇喜尼父學琴之語 有詩記之矣 今因青簡之喻 有戚戚焉 遂反其語 而申其義云」라는 시⁸²⁾에서 몽예의 양웅에 대한 학습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몽예가 장자에 대한 주석을 달아 『莊子天下篇解』를 편찬한 사실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육경고문파의 명대 문학론에 대한 인식과 몽예의 명대 문학론에 관한 인식의 동일점은 몽예의 상고정신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된다. 육경고문파의 허목계열 문인들은 전후칠자의 문학론을 일견 수용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허목이 선진양한고문에 경도되어 있으면서도 명대 이몽양과 왕세정에 이르러 詭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언급한 내용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몽예 역시 앞장에서 고찰했듯이 전후칠자의 왕세정과 이몽양의 功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 폐단에 대한 지적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허목과의 문학적 지향점이 상당 부분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³⁾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몽예의 허목에 대한 비평은 상당히 우호적인 성격을 보인다.

허목의 글은 만년에 와서 굳세졌다. 許積을 공격하는 상소문은 표현이 원만하고 뜻이 활기차서 수은 구슬이 흘러 구르는 듯하다. 자가 불규칙하면서도 전혀 막힘이 없으니 기이하다.⁸⁴⁾

81) 송혁기, 앞의 논문, p.88-89. 참고.

82) 본 논문, p.23. 참고.

83) 송혁기, 앞의 논문, p.101. 참고.

몽예는 허목의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서 그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구체적 예로 든 작품이 『論執政筭』가 그것인데, 실제 이 글은 治와 亂, 賢良과 小人을 대비하면서 강건한 어조로 사리를 논하는 글이다. 돌려 말하거나 표현의 교묘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원칙을 장악한 입장에서 확신에 찬 화법과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자구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당송고문의 자구 운용법이 아닌 육경고문에 의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전혀 막힘이 없다는 것은 작품에 구현된 氣勢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몽예는 허목의 문하에 있었던 宋廷奎(1656~?)에 대한 문학적 성취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허목에게서 배웠지만 조금 流暢한데로 흘러갔다고 평하면서 그 문자가 奇雅精妙하여 우리나라에는 드물다고 호평하였다.

허목에 대한 몽예의 입장은 六經을 중시하는 학문적 태도에서 그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그 기저에 尙古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최립과 유몽인에 대한 비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최립의 문장은 비록 깊고 짙 차있는 듯하지만 문사 운용이 막혀 있고 난삽하다. 그저 옛사람의 자구를 모방하는 데에 조금 재주가 있을 뿐 편장의 대체를 깨닫지 못했다. 이치도 볼 만한 것이 없어 이규보와 비교하면 멀리 미치지 못한다. 김창협이 최립을 칭송하고 이규보를 비판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니 또한 가소롭다.⁸⁵⁾

최립의 문장은 다만 유몽인과 상하를 겨룰 수 있을 뿐이다. 유몽

84)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許眉叟文字 晚歲始適 攻許積疏 辭圓意活 如流丸走汞 字句雖參差 絕不滯礙 奇矣”

85) 南克寬, 『夢嚙集』 坤, 「謝施子」 “崔簡易文 雖似沈實 然命辭局澀 只效古人字句小巧 不曉篇章大體 理致又無可觀 比李相國 不及遠矣 金昌協稱崔而詆李不遺力 亦可笑也”

인이 높은 부분은 최립이 미치지 못하고, 낮은 곳은 최립이 하지 않는 바이다. 긴 것을 자르고 짧은 것은 이으면 진실로 노나라 위나라의 정치처럼 형제간이다. 창협은 도리어 이로써 최립과 장유를 말했으니 신뢰할 것이 못 된다.⁸⁶⁾

몽예는 김창협이 최립을 칭송한 언급이 바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최립의 문학적 성취에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상 최립에 대한 평가는 ‘의고적 작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로서나 현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고⁸⁷⁾ 김창협의 산문 지향이 최립 산문의 특성과 겹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김창협이 최립 산문에 대한 호평 역시 전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창협이 주목한 대표적 작가는 최립이었고 김창협에 의해 최립이 재평가 받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몽예의 비판은 완전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으로 드러난다. 우선은 이규보와의 우열을 들었고, 그 다음은 유몽인과의 비교를 통해 최립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유몽인과의 비교를 통한 비평이다. 柳夢寅(1559~1623)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살펴보면 유몽인은 진한고문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⁸⁸⁾ 하지만 유몽인의 문학이 지니는 독창성은自得에 있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⁸⁹⁾ 선진의 古經에 근거한 自悟自得의 방법이 유몽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지향점이었다. 따라서 전후칠자에 대한 인식 역시 득과 실을 정확히 분별하고 있었고 古文

86)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崔文 只可與柳於于相上下 柳高處崔所不及 低處崔所不爲 截長續短 眞魯衛之政也 昌協反以是言崔及谿谷 不足信也”

87) 김우정, 『최립산문의 예술 경계』, 한국학술정보, 2006.

88) 배부기, 「유몽인 산문론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89) 강명관, 「16세기~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4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으로 통용되던 선진양한 고문과 당송 고문을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였다. 각각의 경서나 문집에 따라 학습해야 할 요소를 잡아내어 그에 대한 배움을 강조하였다.⁹⁰⁾

몽예의 최립과 유몽인 비교평가는 당대의 일반론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문인들의 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⁹¹⁾ 權擘과 車天輅, 李廷龜의 논의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사실 몽예는 유몽인에 대해서 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그 우수성을 인정하였다.⁹²⁾ 『어우야담』과 백두산을 기록한 문장에 대한 호평들이 실질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유몽인 문학에 대한 몽예의 긍정적 인식의 저변에는 조부인 남구만의 문학의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몽예의 조부인 남구만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문단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발전시켜 이후에 나타나는 朝鮮風의 문학창작의 始原으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⁹³⁾ 이러한 남구만의 중요한 문학적 특징 중의 하나가 ‘自得의 강조’인데 바로 이 점이 유몽인의 문학적 특징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 남구만은 전범의 설정과 오랜 기간에 걸친 精審한 學習, 靈感과 직관적 이해가 어우러진 순간의 自得을 강조하였다. 학습 방법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범주안에서의 지향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몽예의 학문은 자연히 조부였던 남구만의 문학론의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조부의 문집을 교정하는 작업은 자연스럽게 학습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몽

90) 금동현, 「유몽인 산문이론의 구조와 의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2005.

91) 柳夢寅, 『於于集』, 「於于堂文集諸賢批評」 “權習齋曰

92)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於于野談 述金仁福語 文特瓊麗 勝滑稽傳優孟銅歷之說 記白頭山亦奇”

93) 김영주, 앞의 논문, pp.205-206. 참고.

예가 직접적으로 自得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배경에 남구만의 문학론을 염두에 둔다면 유몽인의 문학적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비평들에서 몽예의 문학적 특징이 尙古 정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허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육경을 중시하는 허목의 학문적 경향을 근거로 삼아 몽예의 尙古 정신과 상호 교합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었다.

최립과 유몽인에 대한 비평에서 몽예는 절대적 긍정이 아닌 비교우위의 평가를 통해 둘의 문학적 성취를 평가하였다. 최립에 대한 발언은 다분히 김창협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유몽인에 대한 몽예의 인식은 육경을 중시하는 학문적 경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3. 脫朱子學的 認識의 擁護

몽예의 문집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西溪 朴世堂(1629~1703)이다. 박세당은 禮學으로 이름난 朴世采(1631~1695)와 같은 집안이며 少論인 朴泰輔(1654~1689)의 부친으로 학문의 계보상으로는 西人에 포함된다. 그러나 南人의 尹鑄(1617~1680)와 함께 漢學派 혹은 考證學派로 분류되는 독특한 인물이다.⁹⁴⁾ 고증학과는 漢唐의 古注들을 광범위하게 참고하면서 효제충신의 윤리관과 경국제민의 고대유학을 내세워 人性론과 형이상학적 인식론으로 무장된 朱子性理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박세당은 당시 주자성리학으로 경직된 사상적 분위기에서 斯文亂賊으로 몰릴 만큼 반주자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四書와 함께 『詩經』, 『書經』에 대한 『思辨錄』을 저술하여 주자의 주석에 회의를

94) 이병주, 『한국유학사략』, 아세아문화사, 1986.

품었으며, 도가의 책인 『道德經』와 『南華經』에 대한 주석도 가하였다. 17세기 시단의 신경향으로 대표되는 박세당의 의론은 유가의 교화주의적 시관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고 있다. 「柏谷集序」의 앞부분은 시 발생과정의 구도를 논한 주자의 「시집전서」를 역설적으로 모방하여 시 창작에 있어서 감정을 강조하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그 감정에는 기뻐함과 화냄과 슬퍼함과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 이 여러 가지 것이 마음에 쌓이면 흘러나와 말로 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게 되면 長短節奏가 생기게 되니 이것이 곧 시이다. 시가 본대 뜻을 그려내고 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과 뜻에 합당한 것을 기약할 뿐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공교로움을 일삼을 필요는 없다.⁹⁵⁾

박세당이 견지한 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위의 글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박세당은 시 발생과정의 구도에서 시가 만들어지는 근본요소로, 의도적으로 性을 제외하고 情을 설정하였다. 시는 사람의 솔직한 情을 표현하여 장단절주에 맞고 뜻에 합당하면 족하기 때문에, 情을 표현하는 것이 곧 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솔직한 표현을 시의 근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관은 『詩經』의 大義인 思無邪를 효용론적 관점으로 해석한 주자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思無邪의 의미를 人情을 발로가 作爲的이지 않고 솔직한 것에 있다고 해석하였다.⁹⁶⁾ 즉, 情之眞을 시의 근본적인 정신으로 인식하

95) 朴世堂, 『西溪全書』 7권, 「柏谷集序」 “人生而有情 情有爲喜爲慍爲哀爲樂 此數者蓄乎心 不能不洩之言 言之有長短節奏 是爲詩 詩本所以寫意道情 則期乎情愜意當而止 固無所事工”

96) 朴世堂, 『西溪全書』 7권, 「思辨鹿」, [論語條] “思無邪, 明是指詩而言之 非言其用之使人如此 或者之問 亦知疑之而朱子又答以是 要讀詩者思無邪 此蓋無他 只以爲詩雜善惡 不當以此一言而蔽 故更就一轉 謂此非謂詩 謂讀者要爾然 此章之指 終恐不如此 蓋三百篇之言 雖有善惡之雜 一皆出於情之所發而無修飾虛僞之辭 卽所謂思無邪者也 程子曰思無邪者 誠也 可謂得其意矣 說者又亂之 至謂此論

였으며, 詩作에서 중점적인 요소를 ‘표현성이 내재된 정서’에 두었다. 따라서 그가 당대의 모의적 시작태도에 비판적이었음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시는 각각 시대에 따라 중국의 시를 본받아 왔는데 그 누추함이 매우 심하다. 시에 능한 자라 하더라도 겨우 앞서 사람의 시구를 주워 모아 어설프게나마 말의 이치에 맞으면 그만둔다. 사방으로 멀리 전하여 외움에 듣는 자도 놀랍게 여기나 그 또한 여기에서 만족하지 공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침내 이에서 그칠 뿐이니 문장이 그 법도를 얻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⁹⁷⁾

시어의 模擬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시인들의 전반적인 詩作태도를 비판한 글이다. 위의 글을 볼 때 박세당이 무조건적으로 唐詩 자체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비판한 것은 모의적인 詩作태도이다. 박세당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모의나 답습은 아주 저급한 행위로 본 것이다. 결국 박세당이 반대한 것은 唐詩가 아니고 唐詩의 형식적인 측면을 모의하는 부류인 것이다.

몽예 역시 전후칠자의 언어모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⁹⁸⁾를 제시하였는데 그 배경을 박세당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박세당은 몽예의 조부인 남구만의 처남이었다. 박세당과 남구만의 관계는 친척관계를 뛰어넘어 깊은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박세당과 남구만의 학문적 성향이 작지 않은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고 있다. 실제로 박세당은 남구만의 집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다.⁹⁹⁾ 따라서 몽예의 학문의 기틀은 박세당의 영향력을

誠 非論詩 不已謬乎”

97) 朴世堂, 『西溪全書』 7권, 「柏谷集序」 “東方之詩 各隨時代 效學中國 其陋彌甚 就其能者 亦僅僅拾前人唾餘 粗成語理便已 傳誦四遠 聞者爲驚 其人亦自足於此 不復力求其工 故遂亦終於此而已 文章之得其則也若是難哉”

98) 본 논문, pp.41-45. 참고.

비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장은 서계가 집대성하였다. 시 역시 이를 따른다. 서계의 문장은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남송 이래로는 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¹⁰⁰⁾

서계의 문장은 당송팔대가에 필적할 만하며, 그 중 왕안석이나 증공 같은 이들보다는 더 나은 듯하다.¹⁰¹⁾

우리나라의 묘지명으로는 서계의 「최완성비」를 최고로 쳐야 마땅하다.¹⁰²⁾

몽예가 박세당을 唐宋八大家와 대등하게 논한 것은 후대 논자로 하여금 당쟁의 극단적인 폐해로 지적되기도 할 정도로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물론 가문적 친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崔完成碑(領議政完成府院君崔公神道碑銘)」의 대상인崔鳴吉과의 당파적 관련 등도 위와 같은 언급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유독 박세당을 최고의 문학적 성취로서 높인 데에는 몽예 나름의 문학적 비평기준이 분명히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언급만을 가지고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 박세당과 몽예의 학문적 지향점이 공통적인 부분을 고찰한다면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세당의 탈주자학적 인식에 기인한 발언은 당대 문인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주자학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김창협에게 있어

99) 김영주, 위의 논문, pp.205-206. 참고.

100)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東國之文 集成於西溪 詩亦隨之 西溪之文 不特東方所未有 恐南宋以下無其儔也”

101)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西溪之文 殆可厲行八家 而如介甫, 子固 疑若過之”

102) 南克寬, 『夢巖集』 坤, 「謝施子」 “東國銘墓文 當以西溪崔完城碑 爲第一”

서 박세당의 주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장(박세당의 「사변록」의 思無邪 條)에서 논한 것은 특히 매우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으니, 분명히 따져서 따금하게 논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발동함에 있어, 그 正은 天理의 本然에서 나오는 것이고 邪는 氣稟과 物欲의 탁하고 더러운 데서 생기는 것이니 따라서 그 언행으로 드러나는 것에도 역시 善한 것은 正이 되고 惡한 것은 邪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天理든지 人欲이든지, 善이든지 惡이든지 불문하고 情이 발한 바 수식이나 허위가 없는 것을 無邪라고 한다면, 桀이나 盜跖같은 자가 情欲에 아무렇게나 맡겨 天理를 능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식, 허위만 없으면 無邪라고 할 수 있으며 君子가 정욕을 절제하고 禮義에 따르고자 애쓰는 것은 도리어 邪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급될 폐해가 이르지 못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¹⁰³⁾

김창협이 발언이다. 평소 김창협이 주장하는 性情의 진실한 발현이 거리낌 없는 감정의 발현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인용문에서 문제가 되는 박세당의 관점은 『詩經』의 詩가 思無邪하다는 것은 그 내용이나 효용에 있어서의 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꾸밈없는 진실된 표현으로 情을 발현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김창협은 전형적인 朱子學의 시각으로 이를 비판한다. 詩의 내용이 되는 人心思慮之動은, 작가의 心이 外物과 접하여 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곧 情을 언어로 표현한 詩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이를 무시하고 창

103) 金昌協, 『農巖全集』 권 15 장 10, 「論思辨錄辨」 “此章所論 尤極悖謬 不可不明辨痛斥 夫人心思慮之動 其正者 出於天理之本然 而邪者 生於氣稟物欲之濁穢 故其發於言行也 亦善者爲正 而惡者爲邪 今也不問理欲善惡 而槩以情之所發 無修飾虛僞者爲無邪 則是雖如桀跖之任情縱欲 以滅天理者 亦將以其無修飾虛僞而謂之無邪 而君子之節情制欲 勉循夫禮義者 反爲邪矣 其流之弊 將何所不至哉”

작 과정의 眞率性만을 따지는 것은 결국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비판의 대상인 박세당이라고 해서 창작 주체인 작가의 성정이 품은 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박세당 역시 儒學者로서의 도덕적 지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詩經』 詩를 대상으로 한 언급을 詩 일반에 대한 그의 견해로 확장시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창협이 위와 같은 의론은 비판의 각도를 보다 예리하게 하기 위한 논리적 비약의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情이 性의 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의 근거를 가진 心的 實體라는 박세당의 性情 논의를 그대로 따르면서 이를 詩論에서 情之眞을 강조하는 논리로 연결시키는 경우, 詩의 내용으로서의 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김창협이 위와 같은 비판은 바로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간 지점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창협이 언급한 성정의 眞은 개성적 감정 해방 논리와는 거리를 두어 이해해야 한다. 그가 문학의 지향으로서 眞을 강조한다고 할 때, 그것은 타고난 정욕을 긍정하고 그 자연스러운 발로가 진정한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주정적 문학론의 흐름이나 그와 큰 줄기를 같이 하여 민간의 노래를 높이고 통속문학을 옹호하며 궁극에는 국문문학론으로까지 이어지는 입장, 혹은 실제 객관적 현실의 가식 없는 인식 및 그것의 진정한 寫出의 의미로서의 眞을 강조하는 논리 등과 동질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性情之眞, 天機之發 등의 구절이 대부분 의고 비판의 문맥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작가가 세계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에 다른 텍스트를 개입하여 모방하거나 상투적 형식의 답습, 지나친 자구 조탁 등을 일삼는 假에 대조되

는 것으로서의 ‘창작 주체의 내적 체험의 진실성’이라는 의미의 眞에 대한 강조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김창협과 박세당이 추구하는 眞의 의미는 그 출발점부터가 달랐으며 몽예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창협이 아닌 박세당의 의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박세당 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實質의 지향성이다. 그간의 박세당에 관한 연구가 물론 탈주자학자, 반주자학자, 초기 실학자로 평가되어졌다. 탈주학자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박세당의 학문이 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바로 淸나라에 대한 정책인데, 명나라 연호인 崇禎이 아닌 청나라 연호인 康熙를 쓸 것을 주장하여 온건책을 강구하였다. 박세당의 이러한 논리는 “상대방이 거대한 위력을 지닌 존재라면 그에 대항하기보다는 복종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도 있다”¹⁰⁴⁾는 평소의 생각에서 도출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실질적 인식은 역사 인물을 품평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인물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업적을 판단하였다.¹⁰⁵⁾ 또한 육경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특징점은 몽예의 문학적 지향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몽예 역시 역사인식과, 현실적인 曆法의 문제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했었고 그러한 인식은 당시 조선 문단의 주자학적 이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몽예는 문집에 性理論辯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다양한 학문에 관한 관심을 반성하거나 자괴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김창협의 경우에서도 그러하

104) 朴世堂, 『西溪全書』, 「平濟塔碑跋」.

105) 최윤정, 「서계 박세당 문학의 연구 - 실질 지향성과 인식적 한계를 중심으로」, 『어문논문』 35권 제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듯이, 朱子學이 그 시기 지식인들의 사유 전반에 걸쳐 강한 구심력을 작용하였던 상황에서 몽예의 탈주자학적 인식은 상당히 획기적이었고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다.

V. 文學史的 意義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문학적 결실을 맺는 성과가 많이 제출되었다. 이 시기에 생존했던 몽예는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저작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전해져서 읽히게 된다.

김창협은 정두경이 鈍賊으로서 호백구를 흠치는 민활한 솜씨가 없다고 하였는데 나는 정말 그러한지 의심스럽다. 조선 3백년간의 시인을 두루 살펴보니, 칠언시는 남의 작품을 흉내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정두경의 ‘海闊天高, 揮斥八極’ 같은 솜씨를 따를 자가 있겠는가? 이에 몽예가 정두경을 치켜세워, 둔적이라 평한 김창협의 말을 꾸짖었다. 몽예의 다른 논설은 모두 사특한 설이라 할지라도 이 논의만은 견식이 밝고 공정하다 일컬을 만하다.¹⁰⁶⁾

위의 인용문은 李思質(1705~1776)의 견해이다. 몽예가 노론계 문인들에게 심한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몽예의 정두경에 대한 비평의 공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이 가지는 의미는 몽예가 남긴 주장이나 견해가 그의 死後에도 계속 읽혀졌고 그것이 또 논란의 요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남극관의 문집을 보았다. 남극관은 사람됨이 자못 才藝가 있어 문장, 曆數의 여러 학술에 뛰어나 대단히 자부하였다. 그러나 일개 어린애로서 감히 선배의 지론을 꾸짖어 능가하려 하는 등 오만하고 사납기가 그 조부의 유풍을 가졌다. 그리하여 尤翁, 谷雲, 農巖은 이

106) 李思質, 『韓山世稿』, 권 11, 「雜著」 “農巖以東溟爲鈍賊 非竊襲手段 吾未知其然也 歷觀三百年詩家七言 無非依樣 誰獎許東溟 而謂農巖鈍迹之語 得寬他說 雖皆邪說 此論可謂識明議公也”

름을 직접 쓰고, 文谷, 畏齋는 字를 쓰고, 허목과 이잠은 극도로 추존하였으며, 박세당의 문장은 八代家와 伯仲間이라 하였으니, 그의 논의를 조리가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黨論이 생긴 이래로 큰 義理를 따질 것이 없이 시비가 관계된 것이면 일체 서로를 통하려 하지 않았다. 비록 詩文이나 字劃 같은 말단의 일이라도 서로 상관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고질병이 아니겠는가? 朱子와 같이 예지를 가진 사람도 오히려 異端의 여러 책을 읽어서 그 해가 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만약 도적의 장물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도적임을 밝힐 수 있단 말인가?¹⁰⁷⁾

황윤석(1729~1791)의 글이다. 황윤석은 몽예의 문집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몽예의 문학적 성취를 평가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몽예의 역법과 문장 등 다방면에 걸친 학술적 재능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몽예의 견해나 비평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황윤석은 어린 나이의 몽예가 당대의 대가로 평가되던 문인들에게 불손한 태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위의 두 인용문 모두 몽예에 대한 적극 찬동이나 맹목적 추송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분적인 문학적 성취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아마 너무 젊은 나이에 실용성을 추구한 몽예의 의론들이 급진적이고 개혁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몽예의 문학적 성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몽예는 짧은 생과 신체적 활동의 제약이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가 일궈낸 학문적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문학뿐만이 아

107) 黃胤錫, 『頤齋全書』, 「頤齋遺稿」 권 12, “閔南克寬集中(中略)其人頗有才藝 能出於文章曆數諸家 沾沾自喜 然而以一介黃口 乃敢嘖轢前輩持論 傲狼有其祖遺風 蓋於尤翁谷雲農巖則名之 於文谷畏齋則字之 於許穆李潛尤極推尊 而朴世堂之文可伯仲八代家 其擬議可有倫哉 我國自有黨論以來 無論大義理 是非關係處 一切不欲相通 雖詩文字劃之末 亦不欲相關 此豈非痼疾也耶 且以 朱子之叡智 猶須傳觀異端諸書 以明其爲害 若不得贓 何以明其爲賊乎”

닌 다양한 학문에 대한 몽예의 관심은 그의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탈주자학적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 18세기 후반의 실학의 태동이 바로 탈주자학, 반주자학의 인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몽예의 이러한 견해는 실학의 탄생을 알리는 복선과도 같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을 통틀어 하나의 문학사조가 문단을 지배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학론이 함께 공존해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문학이론과 견해들이 어우러져야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 그간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문학사는 김창협 계열의 문인들의 시각을 토대로 구성되어져 왔다. 그들이 가지는 문학적 성과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사실은 김창협 당시의 문단에도 그와 다른 문학적 노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상고주의적 문학론을 지닌 허목계열의 문학 이론과 퀘를 같이 했던 몽예의 문학인식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대의 문인들이 김창협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몽예의 견해 역시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노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VI. 結 論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요약, 정리하며 후일의 과제를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夢巖 南克寬(1689~1714)은 몽예 남극관(1689~1714)은 조선 숙종 때 문인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는 몽예의 詩, 또는 文에 관한 각각의 연구가 이루어져있을 뿐이고 특히 김창협과의 대립적인 비평으로 많이 부각되어 김창협의 논의를 위한 주변인물로 설정되어 연구되어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몽예의 문학의식의 입체적인 재조명을 위한 의도로 시도되었으며 그의 문학적 특징을 유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II장에서는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문학의 흐름에서 몽예의 삶을 가늠하였다. 몽예는 기질을 앓으며 26세의 짧은 생을 살다간 인물이다. 이러한 신체적 결손이 그가 학문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데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병이라는 불행은 오히려 그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독서를 선택하게 했으며 방대한 독서와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몽예에게 놓인 이러한 신체적 제약이 다양한 문학작품을 섭렵하고 그를 통해 비판적 시각을 지닐 수 있게 하는데 일정 정도 동기를 부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는 몽예의 의식세계 형성 배경과 중국 문학에 대한 몽예의 수용양상을 고찰하여 몽예의 문학의식의 저변을 살펴보았다. 몽예의 문학의식의 배경에는 독서에의 심취로 인한 방대한 독서량과 폭 넓은 독서태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몽예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은 그가 실용적이고 탈주자학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밑바탕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학에 대한 몽예의 수용양상은 개방적 시각과 유연한 사고로 인한 폭 넓은 문예 사조의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몽예는 당시 유입되는 중국 서적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평가의 양상이 바로 다음 부분에서 논의한 명대 문예사조의 절충적 수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당시의 문인들이 여러 중국 문예사조 중에서 하나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몽예는 각각의 사조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장단점을 취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작가의 비평을 통해서 몽예의 문학세계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몽예의 비평은 김창협과 대립되는 점이 많아서 비교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

1. 氣 中心의 비평관에서는 정두경과 이규보에 대한 평을 바탕으로 몽예가 중시하는 문학적 지향점이 氣力의 중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두경과 이규보의 문학론은 氣勢, 氣力, 氣格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에 의해 후대의 문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몽예 역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런 인식의 태도는 몽예가 氣를 중시한 비평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2. 尙古정신의 중시에서는 허목, 최립과 유몽인의 비평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몽예의 허목에 관한 긍정적 평가는 六經을 비롯한 先秦의 經書들을 전범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몽예 역시 경서를 중시한 학습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기본에 충실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최립과 유몽인의 비평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특히 선진고문의 학습을 통한 自得의 논리를 주장했던 유몽인의 문학론에 대해서 몽예는 깊게 공감하고 있었다.

3. 脫朱子學적 인식의 옹호에서는 박세당에 대한 몽예의 논의를 가지

고 전개하여 성리학적 인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몽예의 문학적 특징을 가늠할 수 있었다. 당시로는 파격적이었던 박세당의 이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몽예의 탈주자학적인 인식은 후대 實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V장에서는 문학사적 의의를 통해 몽예의 문학사적 위상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몽예는 짧은 생을 살았고 얼마 되지 않는 양의 문집을 남겼지만 후대의 문인들에 의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몽예가 이론 문학적 성취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특히 몽예의 실용적이고 탈주자학적인 인식은 조선 후기 실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몽예 남극관은 격변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알차게 살다간 문인이다. 그의 문학적 성취는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미완의 결과물로도 후대의 문인들에게 읽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논의되어진 몽예의 문학의식 연구는 그의 전반적인 문학론에 대한 검토를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사실 몇 가지 특징으로 다양한 몽예의 문학적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가지는 문학적 특징은 조선 후기의 문학론, 특히 소론계 중심의 학맥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삼고자 한다.

몽예의 문학론 형성이 그 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몽예 가계의 전반에 걸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기며 보다 입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 『夢巖集』, 『한국문집총간』 권 209.
『晦隱集』, 규장각 소장본, 5권 2책.
『藥泉集』, 『한국문집총간』 권 131,132.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권 161,162.
『頤齋全書』, 『小華詩評』, 『壺谷詩話』, 『芸窩集』, 『頭陀集』,
『西浦漫筆』, 『韓山世稿』, 『西溪全書』, 『於于集』, 『正祖實錄』,
『論語』, 『孟子』, 『史記』, 『揚子法言』,

2. 著 書

-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출판사, 2007.
김영숙, 『한국 영사악부 연구』, 경산대학교 출판부, 1998.
김우정, 『최립산문의 예술 경계』, 한국학술정보, 2006.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7.
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_____,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_____, 『조선후시 시화사 연구』, 소명출판, 2002.
이명재,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7.
이병주, 『한국유학사략』, 아세아문화사, 1986.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 1998.
- _____,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조종업, 『한국시화연구』, 태학사, 1991.
-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 論 文

- 강명관, 「16세기~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4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금동현, 「유몽인 산문이론의 구조와 의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사, 2005.
- 김주수, 「몽예 남극관의 시세계 연구 - 음유지미의
슬픈미감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0집, 보고사, 2006.
- 김영주,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 연구」, 『한국의 철학』 3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 남은경, 「정두경 문학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박동주, 「몽예 남극관의 시세계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배부기, 「유몽인 산문론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송혁기, 「몽예 남극관의 학문과 산문비평」, 『한문학보』 14집,
우리한문학회, 2006.
- _____, 「김창협 비평의 산문사적 이해」,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사, 2005.
- _____, 「김창협 문학비평의 당대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제18집, 2000.

- 신승훈, 『前後七子 受容과 朝鮮中期 文苑의 反響』, 『부산한문학연구』 제16집, 부산한문학회, 2002.
- 원종례, 『明代前後七子の 詩論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이창용, 『南克寬의 謝施子 연구 - 학문관과 문학을 중심으로』,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석용, 『몽예 남극관의 속동도악부 연구』, 『한문학논집』, 단국한문학회, 1991.
- 정재현, 『이탁오 사상에서의 생성과 욕망의 문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진영미, 『몽예가 본 농암의 문학과 비평론』, 『민족문화』 24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 최윤정, 『서계 박세당 문학의 연구 - 실질 지향성과 인식적 한계를 중심으로』, 『어문논문』 35권 제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최현태, 『농암 김창협 시론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ABSTRACT

A Study on Literary Consciousness of Nam Guek Guan (南克寬) (Pseudonym: Mongyei (夢巖))

Lim, Seung Hyun

Dep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Nam Guek Guan (also known as Mongyei (夢巖) in his pseudonym) liv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turn of the century between the 17th and 18th century. At that time, Joseon was in social and political turmoils, suffering partisan conflicts and aftermaths of war and thus going through a variety of complicated changes in terms of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s how Nam Guek Guan's literary consciousness and explores his literary characteristics. His physical activities were limited by his illness. Reading literary works on diverse subjects was his means to fulfill his intellectual curiosity while writing was his means to communicate to the world and to express his academic pride. His literary consciousness based upon this was also reflected in his

adaptation of Chinese literature to Korea. Korean literature of the period were heavily influenced with the active inflow of Chinese literary works, and Nam Guek Guan was well aware of the trend in the literary society. Since he studied Chinese literary trends extensively, he was able to establish his own critical perspectives with open-mind perspective and flexible thinking. In particular, maintaining a balanced view between retro-classical (擬古主義) and liberalistic(公安派) views, he even evaluated merits and demerits of both views, not inclined with a preference.

With such a basis, Nam Guek Guan's literary characteristics are re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criticisms on Korean writers: 1. ki (氣)-centered criticism, 2. emphasis on the reverence for things old, and 3. advocacy of post-Zui Zi school's ideology.

In terms of the Korean literary history, Nam Guek Guan does not have a big significance mostly because he died young before he could make any noticeable literary accomplishments. However, his views and criticisms in his publications rendered an opportunity to look at Joseon's literary world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rom a more balanced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ortray Nam Guek Guan's literary consciousness neglected so far from diverse points of view.